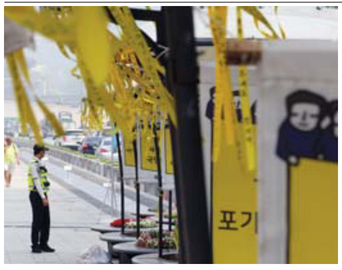


세월호 특위 침몰 위기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15일 수요일 제3258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4일>

코스피	2,059.23	(-2.29)
코스닥	757.12	(+7.66)
금리(국고채 3년)	1.80	(-0.01)
환율(원·달러)	1142.80	(+11.00)





삼성물산이 17일 주총에서 자신들을 밀어달라며 내보내고 있는 TV 광고(왼쪽 사진). 엘리엇매니지먼트 오너 폴싱어(오른쪽 두번째)가 2002년 한일월드컵 한국-독일 전에서 한국을 응원했다고 내놓은 사진.

오버 삼성 vs 오만 엘리엇

삼성, '소액주주 위임장 받기' 유례없는 광고공세
엘리엇, 유태인 오너 독일전 한국 응원 사진 공개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오는 1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표심을 잡기 위해 이례적인 TV광고와 애국심마케팅, 폴싱어 엘리엇 회장의 한국사랑 자료배포 등 양사간 언론플레이가 점입가경이다.

14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외국인 주주, 기관 투자자들의 표 향방이 점차 결정되면서 삼성물산 합병은 소액주주들에게 달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삼성물산과 엘리엇은 소액주주들에게 위임장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다.

삼성물산측은 외국 투기 자본인 엘리엇으로부터 국내 기업인 삼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애국 마케팅이 전개 되면서 엘리엇은 먹튀 논란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전날 엘리엇은 폴싱어 회장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붉은악마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뜬금없이 공개하면서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는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엘리엇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폴 싱어 회장은 한국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브라질 쌈바축구를 좋아한다고해서 브라질 특정 기업도 애정이 있다는 식의 비논리적인 감성호소는 오히려 반감을 산다"며 "폴싱어 회장이 한국팀을 응원했던 것 또한 유태인 출신이란 점에서 독일을 이겨줬으면 하는 맘이 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해야 하지만, 엘리엇은 이마저도 자신들을 편드는 특정언론을 지정해 인터뷰를 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3일 한 매체에는 제임스 스미스 엘리엇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투자책임자의 인터뷰가 실렸다. 엘리엇의 홍보대행사에 따르면 엘리엇 측은 여태까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엘리엇의 홍보대행사 측은 "다른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엘리엇은 자신들과 뜻이 맞는 일부 매체만 직접 접촉하고 이외의 매체는 거절하면서 오만불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언론계의 평가다.

지난주부터 직원들을 동원해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은 현재 언론의 광고를 통해서 합병 찬성을 선전하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은 1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자사에 위임해달라며 광고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 신문 100여개에는 삼성물산의 광고가 실렸다. 신문 광고는 "주주님들의 주식 단 한 주라도 저희에게 위임해 주시면 큰 힘이 된다"며 주주에게 호소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증권방송 8개, 종편채널 4개, 보도전문채널 2개 등에서도 방송광고를 진행 중이다.

방송 광고에서는 엘리엇이 합병을 무산시키려 한다며 삼성물산의 직원과 협력사 대표가 나와서 합병을 호소하고 있다.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배너 광고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물산이 이처럼 물량공세로 광고를 집행한 것은 창사이래 처음있는 이례적인 일이다.

대규모로 광고를 집행한 후 이번 합병안에 삼성물산의 편에 서겠다는 주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엘리엇이나 삼성의 표심잡기가 도가 지난친 것 같다"며 "광고 집행도 회사의 비용인데 이 또한 사업을 위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주주들의 손해로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은정기자 eunj71@metroseoul.co.kr

비리비리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와 관련,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결권위)가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6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또다시 '언론플레이' 성격의 알맹이 없는 발표문만 내놓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작 국민의 관심거리인 삼성 합병에 대한 찬반 여부는 논의조차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자신들과 의논하지 않고 내부기구인 투자위원회에서 찬반여부를 결정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 삼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았다.

일각에서는 "기금운용본부에 이어 민간기구인 의결권위마저 삼성이라는 '거물'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할 말을 제대로 못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의결권위는 지난 10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내린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날 오전 7시부터 긴급 회의를 열었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은 의결권위에 넘기는 게 일반적이지만 투자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의결권위가 열린 건 2006년 의결권위 출범이후 처음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결권위 위원장이나 3명 이상의 전문위원이 요청을 하면 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 전문위는 앞서 전날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에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된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결권위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김성민 국민연금 의결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전문위원들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결과는 말그대로 '속 빈 강정'이었다. 김성민 의결권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에 관해 전문위원회의 판단 결정을 요청하지 않아 이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기금운용본부가 판단 결정을 요청하지 않은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가 입장을 결정했고 주총 이후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주식 679만7871주(5.04%), 삼성물산 주식 1813만1071주(11.21%)를 보유하고 있다.

/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한줄 News



- ▲ **현대제철**이 14일 서울 본사에서 우유철 부회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열고 '종합소재 기반의 가치창출 기업'이라는 미래 청사진과 함께 2025년까지 매출액 3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경영 목표를 발표했다.
- ▲ **새누리당**이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 ▲ **삼성전기**는 14일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파워, 튜너, ESL 제품 등 일부 모듈사업을 분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 ▲ 완치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15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4일 미국 뉴욕법원에 승무원 김도희씨가 '땅콩회항'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
- ▲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부문에서 5만7214명의 **기간직 근로자**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 ▲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다.
- ▲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 조사결과 지난해 매출 상위 30대 벤처기업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5330만원이며 **다음카카오**가 평균 1억7496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 ▲ 우리나라가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남·북에서 열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 47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29개를 획득, 사상 처음으로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
- ▲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5명 중 2명이 14일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귀환했다.
- ▲ 제10차 **한·일 항공협력회의**가 15일부터 사흘간 서울 김포공항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려 늘어나는 항공교통량의 효율적인 처리와 항공기 지연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 ▲ 진에어는 14일 국내외 18개 노선 항공권을 연중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2015년 하반기 '**진마켓**'을 이날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5일부터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의 **자동이체서비스(CMS)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이체 한도는 온라인 신청 고객 100만원, 영업점 방문 신청 고객 1천만원이었다.
- ▲ 정부가 36조원을 투입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재무적 투자사업으로 변질되는 바람에 당초 목표한 자원확보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 ▲ 농수축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공영홈쇼핑**이 14일 오전 10시 개국했다.
- ▲ **산림조합중앙회**는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의 평가 결과 중앙회의 상반기 국내 순수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를 9.48%포인트를 상회하는 17.76%로,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 16곳 중 1위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 ▲ **해양수산부**는 2020년까지 세계 2대 환적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1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힐러리노믹스=유승민 제3의길

힐러리 "경제성장과 공정경제 동시 구축"
유승민 "성장 해법은 공정한 시장경제"

"우리는 성장과 공정경제를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나머지 하나를 배제한 채 어느 하나만 가질 수 없다." (힐러리 클린턴 7월 13일 뉴욕주 뉴스쿨 연설)

"성장의 해법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 대한 고통스런 개혁이다. 개혁은 공정한 시장경제가 전제돼야 한다." (유승민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시각은 놀랍도록 일치했다. 진보와 보수라는 출발점의 차이, 미국과 한국이라는 국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대문제에 대한 해법은 일치했던 셈이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클린턴 전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뉴스쿨에서 가진 첫 정책발표 연설에서 경제성장과 공정경제를 동시에 외쳤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제3의 길에 빗대 '새누리당판 제3의길'이라고 평가받았던 유 전 원내대표의 연설을 상기시켰다. 클린턴 장관의 이날 연설은 '힐러리노믹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신의 경제구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날 인터넷에 공개된 CNN 영상자료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의 경제구상은 노사 간 이익 공유와 월가 대자본에 대한 규제로 요약된다. 그는 "우리는 추가적인 성장 없이 충분한 일자리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없고, 더욱 공정한 경제 없이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도 소비경제를 지탱할 수도 없다"며 "양자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의 핵심으로 임금인상을 거론했다.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실질 임금 인상으로 돌리면 중산층 가정이 늘어나고 소비경제도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단기 부양책이 아닌 장기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 경제를 '분기 자본주의'라고 부르면서 단기 이익 창출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투자에만 돈을 쓰게 되고 임금 인상에 무관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판은 월가 대자본에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대마불사가 여전히 큰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을 규제감독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까지의 단기부양책을 과감히 버리고 장기성장을 위한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또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정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개혁 동참을 요구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이란 핵협상 최종타결… 산유대국 국제무대 등장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과 핵협상을 벌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협상장 발코니에서 기자들에게 외치는 모습. 미국과 이란과의 핵협상이 13년만에 최종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이란은 핵개발을 중지하고 국제사회는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게 된다. 미국은 쿠바에 이어 이란까지 과거 적대국을 국제무대에 다시 불러 올리게 됐다. 산유대국인 이란의 개방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사회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뉴시스

'반자본주의' 비판에 프란치스코 교황 "중산층 간과 잘못"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중산층을 간과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13일(이하 남미시간)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중산층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빈곤층에 다가가면서 중산층 포용에 무심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9일 볼리비아 방문 때 생태계 파괴를 언급하면서 "이 모든 고통과 죽음, 파괴의 이면에는 성 바실리우스가 언급했던 악마의 배설물의 악취가 풍긴다. 돈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이 지배하고 공익을 위한 헌신은 내버려졌다"며 "자본이 우상이 돼 사람들의 판단을 좌우하고 탐욕이 전체 사회경제 체제를 주도하게 되면 사회는 망가진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미국의 보수층 일각에서는 반자본주의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이자 가톨릭 신자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나는 경제 정책을 주교·추기경·교황으로부터 얻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런 후 대화다"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9월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늘어나는 채무를 갚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이 미국과 쿠바 사이 관계정상화를 중재한 데 대해서는 "공적은 양국에 있다. 교황청이 한 일은 약간 도움이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콜롬비아 정부와 좌익 게릴라,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FARC) 등과의 평화교섭에 대해서는 "언제든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송병형 기자

세월호특위 시동도 못걸어보고 침몰위기

인사권 둘러싼 알력 다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부 구성원을 갖춰 출범도 해 보기 전에 침몰 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예산 지원에 미적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뇌부인 조사위원들 사이의 해묵은 대립과 반목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침몰 일보 직전이다.

14일 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중 한명인 황전원 조사위원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석태 위원장의 별정직 채용 부정 의혹에 대해 "부정이라고 한 건 아니다. 심사위원 선정과정 등에 있어 위원장이 임의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 추천의 조대환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별정직 채용 부정 문제를 제기한 뒤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전날 조 부위원장은 조사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별정직 채용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이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결근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조사위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위가 일은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부위원장은 또 조사위가 정부 외에도 정치권과 유가족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 4·16연대 등 사회단체로부터 독립되지 못해 주어진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 부위원장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조사위 초기부터 있어 왔던 조사위원들 간 대립이 인사권 행사가 도화선이 돼 결국 터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사위는 여당 추천 위원들과 야당·유가족 추천 위원들 간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다.

한 조사위원은 "조 부위원장은 별정직(면접위원)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 체육인 출신 사무국장 등 3명을 4, 5급 별정직 공무원 후보로 추천했지만 이들 모두 탈락했다"고 말했다. 인사에 불만을 품은 조 부위원장이 돌출 행동을 통해 특조위 해체까지 운운하며 조직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야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양보하는 대가로 급조해 통과를 요구한 법안이다. 그러나 세월호법 시행 후 반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특조위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아직 조사활동은 시작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조사위 내 다툼까지 벌어져 세월호 관련 조사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을 벌인 지 1년째 날인 14일 농성장 주변에 희생자들을 기억하자는 노란 리본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원유철 "기업인 포함 통 큰 사면 돼야"

원유철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도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8·15 특사 기업인 사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생계형 범죄로 인한 많은 국민들이 사면이 안 돼서 고통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본적으로 서민생계형 범죄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사면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왕이면 이번 8·15 광복절 사면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 위한 사면이기 때문에 통 크게 대사면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기업인도 다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윤정원 기자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은 연구용"

국가정보원은 14일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인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을 구입했고 각종 기술 문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지 연구용일 뿐이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14일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의 중간 브리핑에서 이철우 여당 측 간사와 신경민 야당 측 간사는 "국정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대북정보, 해외전략 수립 및 연구용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자체에 대해서는 2012년 1월과 7월 20인분 구입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이 "과거와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말한 사실도 함께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RCS는 이탈리아의 한 해킹팀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해커그룹에 의해 해킹당하면서 관련 자료가 유포됐다. 해당 자료 속에는 국정원의 공식대외활동명인 5163부대와의 거래내역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국정원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신 기술을 연구할 필요성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입장이다.

/윤정원 기자

감사원의 이상한 자원외교 감사

"잘못 큰데 문책은 못해"
"성과감사라 대안만…"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성과와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서도 책임자를 문책할 수 없다는 '이상한' 입장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 때 책임부처는 지식경제부로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가 당시 장관을 맡았다.

14일 감사원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성과감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1984년 예멘에 대한 석유개발사업 진출 이래 지난해까지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 원이 투자됐고, 앞으로도 이 중 48개 사업에 46조 6000억 원을 추가 투자된다. 하지만 성과는 없고 청산할 과제만 가득하다. 감사원은 "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원확보는 미미한 채 자원공기업의 재무위험과 국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원외교는 해외자원의 확보가 기본 취지다. 하지만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에너지 공기업이 국내에 도입한 물량을 검증한 결과, 석유공사는 전체 사업에서 확보한 지분(생산량 5억배럴) 대비 고작 0.4%인 224만배럴만 국내로 들여왔다. 광물공사도 지분 생산액의 31.5%인 36억7000만달러를 도입했지만 지분만큼의 자원을 도입하는 데는 부족했다. 가스공사는 지분생산량 9303만배럴의 66.5%인 6187만배럴을 도입해 가시적 성과가 컸지만 이미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한 생산사업에 대한 지분투자 물량까지 포함한 결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자원보유국의 국외반출 통제나 공기업들의 자원처분권 확보 미비 등이 원인이었다. 자원외교의 앞날마저 어둡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투자 등 7개 사업에 대해 투자비 회수 실적이 없는데다 수익성 전망도 낮아 사업의 계속 추진을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각 공사의 주력 사업들은 유동성 위기, 대규모 손실위험 등을 겪고 있어 사업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이런데도 기존 48개 사업에 46조 6000억원의 추가투자 계획이 있어 그대로 진행된다면 종국에는 커다란 재무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자산관리합리화 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등 각 공사의 자산 구조조정을 비롯한 자구노력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밝힌 바로는 이 권고가 바로 이번 감사의 목적이다. 책임자 처벌은 없다.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그간의 성과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송병형기자 bhsong@

특별사면 '심사'는 없고 대통령 '보좌'만

정치인·재벌총수 위주 특사 남용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회대통합을 빙자해 측근과 사회 지도층을 무더기 사면한 역대 정부의 행보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견제하기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법무부 산하에 도입됐지만 심사 기능을 잃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무부는 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필요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본격적인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구체적 범위 등 사면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을 언급한만큼 경제 사범에 대한 특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특사 발언 이후 수감된 정치인과 재벌총수들이 거론되면서 특사 남용 우려가 팽배하다.

특사 남용은 역대 정부에서 비일비재했다. 이를 견제하고자 사면법이 제정 60년만인 2008년 개정돼 사면심사위가 설치됐지만 자문과 권유의 기능만 있어 실질적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퇴임을 2주 앞두고 측근 중심의 '셀프 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됐다. 사면위원회가 도입된 이후였지만 특사 오·남용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심사는 고사하고 보좌만한 셈이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후 10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지만 2년 넘게 표류 중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일 때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정치의 속성 때문이다.

사면심사위 구성원 9명 중 4명이 법무장관 등 정부 측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2004년 한나라당은 당시 대표였던 박 대통령 주도로 '특사를 행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의 입장인 새누리당은 유사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서 국가 통수권자로 위치가 달라지자 새누리당도 정부여당의 위치에서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사면법 개정과 심사위의 독립이 거론되지만 매번 수포로 돌아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면법 첫 개정이 법 제정 60년 만에 이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교 변호사는 "사면심사위는 도입부터 자문과 권유의 역할만 가지고 있었다"면서 "특사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심사위는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전횡을 막자는 취지로 설치됐기 때문에 통합을 명분으로 한 무더기 사면은 오히려 사회대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심사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군공항 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발대식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체육관에서 '군공항 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시민협의회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사업정책분과, 지원사업추진분과, 주민참여분과, 갈등관리분과 등 9개분과 1천100명의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된 민간조직으로 지난 5월 발족했다.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건강 이상으로 입원치료 필요



이재현(55·사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오후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건강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된 적이 있다.

상고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째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심리 중이다.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에 속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후임인 박상옥 대법관 인준이 늦어지면서 심리도 지연됐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특사 논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다만 상고 취하 등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홍원기자 hong@

"동성 상사의 성희롱 발언, 배상해야"

법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직장상사는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여)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처음 출근한 A씨는 팀장인 B씨로부터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두 차례 들었다. 또 B씨는 다음날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다른 상사와 연봉 협상을 시도하면서 B씨가 했던 말을 언급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얼마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고, B씨는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라고 지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바로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사과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A씨는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B씨와 연구소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신 판사는 "B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 A씨가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또 A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증인 출석, 꼭 해야 할까?

생활 법률

김씨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다. 아파트 위아래 주민이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말린 적이 있는데, 양측 입장이 상이해 제3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다음 기일에 그를 부른 것이다. 재판이 진행된 후 당사자 주민으로부터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지만 바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해서 거부하던 참이었다. 사건 당사자도 아닌데다 다툼 도중에 개입해 앞뒤 맥락을 모르는 김씨, 증인 출석을 거부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되도록 출석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경우 제3자인 증인은 가뭄에 단비처럼 공정한 판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정된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인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대한 비용을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정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르면 증인 요청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관련 소송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감치시설에 유치되면 절차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이 즉각 열리고, 증언을 하면 곧바로 풀려날 수 있다.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법원이 무리하게 이를 추진한다고 여겨질 경우 즉시 항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증언으로 인해 자신이나 친족 또는 후견인 등이 유죄 의혹을 받거나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특히 법조인이나 의료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문을 받을 때에는 민법 제315조에 의해 증언거부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판단에 의해 비밀 유지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증언을 해야한다.

/연미란기자

“삼성물산, 일방적 대표권 남용”

엘리엇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은 일방적인 대표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엘리엇이 KCC를 상대로 제출한 ‘삼성물산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심 2차 심문이 열렸다. 앞서 엘리엇은 KCC로 넘어간 삼성물산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냈다가 패소,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엘리엇 측 변호인은 “자사주 처분의 목적과 시기에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이는 불공정하게 이행됐다”며 “KCC측 또한 이를 알면서도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합병 승인을



목적으로 자기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무효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엘리엇 측은 지난 3월 30일자 연결재무상태표를 토대로 합병 후 삼성물산 총주주에게서 제일모직 총주주로 약 8조2970억원이 대가없이 이전된다는 점도 가처분 금지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자사주 처분 이유는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지분을 확보하고, 단기차익을 보려는 회사로부터 다수 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엘리엇이 받는 이익은 없다. 하지만 가처분 금지가 허용되면 자사의 주가는 급락하고, 영업가치 훼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조차 이번 합병 발표가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주가가 7.7% 하락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며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는 약 15% 상승해 시가총액은 총 1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합병 시너지를 증명하는 요소”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예정된 오는 17일 전까지 이 사건의 항고심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보이스피싱 지급건수·지급액 3배 급증

신고보상금 최고 1억원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신고보상금 지급건수와 지급액이 작년과 비교해 각각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의 신고보상금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올린 데다 신고보상금 지급 사실을 홍보한 덕분에 신고 자체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지급건수는 59건이고 지급액은 2110만원이었다. 올 상반기 지급건수는 185건, 지급액은 7555만원이다. 지난해 지급건수와 지급액에 비교해 두 수치 모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상반기 신고보상금 중 최고액은 500만원이었다. 서대문경찰서가 중국, 태국, 베트남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38명을 구속한 사건의 제보자가 최고액 수상자다.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185건 모두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은 아울러 우체국, 은행 직원 등 의심스러운 입·출금을 신고한 금융기관 직원 46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가담자도 즉시 신고할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범죄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고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연안정비사업에 석회석 사용…바다생태계 파괴 우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해안침식 등을 막고자 지난 2월부터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강릉 영진~교항지구 연안정비사업에 석회석을 사용하자 주민들이 바다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공사 현장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檢, SK증권 본사 압수수색

ELS 주가 조작 혐의

검찰이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과 관련,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ELS 주가 조작 혐의로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를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A씨는 ELS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 선으로 떨어뜨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SK증권은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상품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만기 때까지 두 종목의 주가가 발행 당시 주가보다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투자금의 36%(연 12%)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ELS상품 발행 당시 포스코 주식은 47만2000원이었는데 A씨의 매도로 60%인 28만 3200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다. 다음날에도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 며칠 간 60% 이하를 유지했다.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은 60억원대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 3월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A씨의 혐의와 함께 회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SK증권은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위험회피) 거래 가이드에 따라 매도한 것으로 오히려 매도하지 않았으면 법령 위반”이라고 해명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4개월짜리 계약’ 놓고 국민대·시간강사 갈등

“배정 안했을 뿐 해고 아냐”

“필요하다면 누군가 계란으로라도 바위를 쳐야 한다. 계란이 다 하면 이제 손에 망치를 들 날이 올지도 모른다. 망치로 바위치기는 할 만하지 않는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소속 황효일 국민대분회장의 말이다.

14일 모교에서 23년째 시간강사로 재직 중인 황 분회장은 “2011년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오전 1시간 남짓 1인 시위를 한다”고 말했다. 2년 계약 강사임용과 4개월짜리 계약서 철폐를 위해서다. 황 분회장은 올해 1학기 휴지 기간 후 다음 학기 강의 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 통상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는 최대 4학기 강의 후 한 학기의 휴지 기간을 갖는다.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는 방학이 끝날 즈음 학교의 연락을 받고 다음 학기 수업을 결정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황 분회장은 차기 강의를 받지 못하면 이를 실질적인 ‘해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1학기에 그가 속한 국어 교양과 시간강사 10여명도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다.

황 분회장은 지난 10일 국민대에서 기자와 만나 “최대 4학기동안 강의를 지속할 수 있고 그 후 한 학기 동안 휴지 기간을 둔다. 이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발의한 것을 토대로 2년 계약이 넘어갔을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도부터 근로관계를 보장해야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4개월짜리 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이는 정부의 지침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 방식은 근로의 연속성이 없어 퇴직금 청구 권리가 박탈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대 교무팀 관계자는 “시간강사는 학기 단위 계약이므로 한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 배정을 받지 못한 것일뿐 해고라고 할 수 없다”며 황 분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4개월짜리 계약서’와 관련해서도 “고등교육법 상 수업은 15주를 하게 돼 있다. 국민대는 16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한 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그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 분회장은 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학교측을 제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지방노동위원회 심리가 열렸고, 해고와 해고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됐다. 다만 지배 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인정돼 황 분회장은 노동청에 학교 측에 대한 고소를 준비중이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병원내 감염 발생 가능성 높다”

병원 종사자 3명 중 2명 판단

의사나 간호사, 약사 등 병원 종사자 3명 중 2명은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전에 나온 것이다. 원내 감염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는 14일 ‘이용자 및 종사자의 병원안전 인식도 조사연구’(연구책임자 김수경·유명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의연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2~3월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5곳의 병원 종사자(의사, 간호사, 약사) 465명과 환자·보호자 4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병원내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해 ‘높다’(43.4%) 혹은 ‘매우 높다’(21.9%)고 답한 병원 종사자는 65.3%로 집계됐다. 25.6%는 ‘보통이다’고 답했으며 8.8%는 ‘조금 있다’고 응답했다.

병원 종사자들은 병원내 전반적인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부족한 인력’(4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부주의’(11%), ‘진료시간 부족’(8%), ‘숙련도 부족’(7%) 등의 순이었다. /김서이 기자

SK C&C “신 사업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제2회 비즈니스 파트너사 CEO 세미나

IT서비스 발굴 사례·BP사와의 협력 증진 방안 공유

SK C&C가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와 머리를 맞댔다.

SK C&C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본사 비전룸에서 협력사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2회 비즈니스 파트너(BP)사 CEO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SK C&C 비즈니스 협력자(Enabler)로서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 △SK C&C와 BP사와의 협력 증진 방안 △2015년 SK C&C 동반성장 프로그램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원석 SK C&C ICT 성장담당 상무가 강사로 나서 SK C&C의 사물인터넷(IoT)·사물지능통신(M2M)과 빅데이터를 연계한 새로운 프리미엄 IT서비스 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며 BP사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공유했다.

SK C&C는 지난 2014년부터 산업별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비정상 공정운전 사전 감지, 생산 공정 관리, 물류 최적화, 비정상 영업관리 감지, 위치 분석 고도화, R&D 품질 분석 등 고객별 맞춤형 빅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해오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대형 화학 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000여개의 설비 센서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공정 운전을 사전 예측 하는 모델을 개발한 사례, 생산 공정의 비정상 움직임을 사전 감지하고 원인 분석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수율 향상의 성과를 냈던 사례 등을 공유해 BP사 CEO들의 빅데이터 사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정풍욱 SK C&C 구매 본부장은 “오는 8월 1일 SK C&C와 SK가 합병하는 통합 법인 SK주식회사는 기존 ICT사업을 IoT·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융합 기술과 결합,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글로벌 ICT 리딩 기업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새로운 SK C&C의 신성장 사업에서도 우수한 BP사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상생을 강조했다.



이원석 SK C&C ICT 성장담당 상무가 세미나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SK C&C 제공

SK C&C는 지난달 30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4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사업부문별 BP 간담회, 동반성장펀드지원,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무상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자료 임치지원, 건강검진·경조사 지원 등의 복리후생 제도 공유 등 대·중·소 상생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경영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한진重, 해군 다목적훈련지원정 수주

2021년까지 625억원 규모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

한진중공업(사장 안진규) 영도조선소가 방위사업청과 해군의 다목적훈련지원정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한진중공업은 2013년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해군의 다목적훈련지원정(MTB, Multi-purpose Training Boat) 탐색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동안 기본설계를 거쳐 방위사업청과 625억원에 체계개발 사업(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군의 다목적훈련지원정 사업은 2013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함정에 대한 실전적 훈련지원을 위해 대함사격, 대공유도탄사격, 어뢰발사 및 전자전 훈련 지원체계를 구비한 지원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해군은 각종 해상훈련 시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 없어 불가피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을 훈련지원 임무에 투입해왔다. 이 때문에 전력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목적훈련지원정이 도입되면 이러한 훈련지원 임무를 전담해 작전함정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대함, 대공, 대잠 및 전자전 훈련까지 지원함으로써 복합적인 현대전 상황에 맞게 실전처럼 훈련이 가능해진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차기상륙함 선도함인 천왕봉함을 건조·인도했다. 해군이 운용중인 고속정(PKM : Patrol Killer Medium)을 대체하기 위한 차기고속정(PKX-B Batch-I) 사업에도 선도함 건조사로 선정된 바 있다.

사측은 “함정건조 분야에서 또 다시 선도함 건조사로 선정됨으로써 영도조선소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지난달 성공적인 진수를 마친 차기수상함구조함 후속함과 대형수송함 후속함, 차기고속정, 다목적훈련지원정 등 진행중인 다양한 함정 건조 사업에서 100% 자체설계와 건조를 수행해 국방 및 해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정필기자 roman@

농축수산물 전문 공영홈쇼핑 ‘아임쇼핑’ 개국

개국식에 박 대통령 참석 “中쇼 경쟁력 제고 기대”

농축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TV 홈쇼핑인 공영홈쇼핑(채널명 아임쇼핑, 대표 이영필)이 14일 개국했다.

아임쇼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 디지털큐브빌딩에서 개국식을 열고 ‘아임쇼핑’이라는 채널명으로 첫 방송을 시작했다. C&M과 티브로드를 포함한 종합유선방송이나 인터넷TV(IPTV)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채널은 지역에 따라 3·20·21·22번 등이 된다.

아임쇼핑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신설 발표된 중소기업제품·농축수산물 판매 전용 채널로 농협(45%)·수협(5%)·중기유통센터(50%)이 출자한 지 1년여 만에 개국에 성공했다.

이날 개국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전용 채널의 출범을 축하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공영홈쇼핑 개국은 중소기업인과 농업인이 절실히 바라는 혁신적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100%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식품만을 취급하고 판매수수료도 기존 홈쇼핑보다 대폭 낮게 책정해 중소기업과 농어업 경영체를 위해 TV 홈쇼핑 문턱을 낮추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상암동 디지털 큐브빌딩에서 열린 공영 홈쇼핑 개국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어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는 물론이고 품질개선과 혁신적인 제품을 창안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농수산업은 단순한 재배를 넘어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기존 유통채널로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공영홈쇼핑을 통해 이런 제품 판매가 활성화된다면 농어촌 경제를 살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의 파도를 넘는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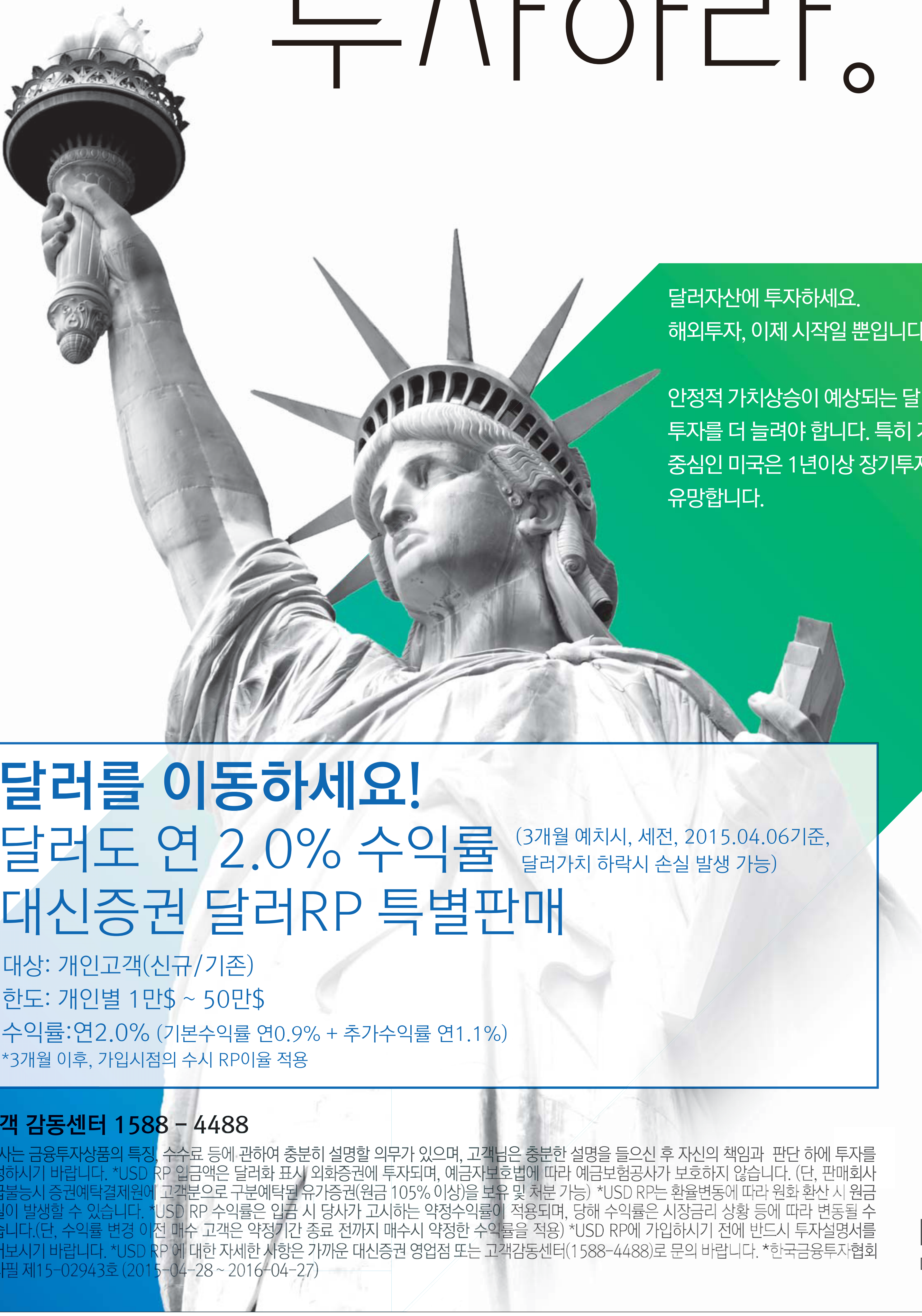
/박상길기자 sweatsk@

Daishin
House View

2015 House View

시장을 먼저 읽어라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해외투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의 중심인 미국은 1년이상 장기투자에서 가장 유망합니다.

달러를 이동하세요!

달러도 연 2.0% 수익률 (3개월 예치시, 세전, 2015.04.06기준, 달러가치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

대신증권 달러RP 특별판매

대상: 개인고객(신규/기존)
한도: 개인별 1만$ ~ 50만$
수익률:연2.0% (기본수익률 연0.9% + 추가수익률 연1.1%)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 RP이율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943호 (2015-04-28 ~ 2016-04-27)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中 두자녀 허용에 유아용품株 '쑥쑥'

| 마켓인사이트 |

연평균 18% 성장 예상 2018년 시장규모 100조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다는 소식에 유아용품 관련주가 날개를 달았다.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아가방컴퍼니의 주가는 전일대비 29.58% 오른 1만3800원에 마감했다. 제로투세븐도 전날보다 19.37% 상승한 1만5100원에, 보령메디앙스 역시 23.26% 오른 3만7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매일유업도 7.13%나 오르며 상승세에 동참했다.

이날 유아용품주가 강세를 보인 것은 중국의 '두자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전날 중국 CCTV는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최근 '세계인구의 날'(7월11일)을 맞아 인구정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발표는 중국 정부가 제한적으로 폐지된 '한 자녀 정책'을 1~2년 안에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가정에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제로투세븐은 현재 알로앤루, 세르반 등의 브랜드로 250여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로투세븐 제공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유아용품 시장은 연평균 약 18% 성장세가 예상되고, 오는 2018년 시장이 100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며 "중국의 두자녀 정책이 현실화되면 충분히 수혜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아가방컴퍼니'는 중국 랑시그룹 인수에 따른 시너지가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정기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중국 랑시그룹을 통한 중국사업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신규 물류센터 준공과 중국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사업 확대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올해 영업이익은 국내 매출액 회복과 비용 감소에 따라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매출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유아동용품업체 '제로투세븐'도 중국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한승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로투세븐이 지난 2007년 유아동용품 업체 최초로 중국 법인을 설립했다"면서 "현재 알로앤루, 세르반 등 브랜드로 250여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중국에 유아복만 진출한 상태다. 그러나 내년엔 스킨케어 브랜드인 '궁중비책'도 진출할 예정이다.

그는 "제로투세븐 중국법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292억원을 기록해 4년 만에 124% 성장했다"며 "중국법인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370억원, 영업이익은 4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6.7%, 21.1%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에선 국내보다 높은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익 측면에서도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 연구원은 평가했다.

보령메디앙스 역시 중국 대륙 공략에 적극적이다.

현재 중국 진출 초기단계이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향후 신규 브랜드 진출과 품목 다양화, 유통 채널 다변화를 통해 본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증권 마감시황

美 금리인상 우려·대형주 약세에 하락

코스피, 나흘만에 2.29p↓

코스피가 미국 금리인상 우려와 국내 기업 실적부진 전망에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9포인트(-0.11%) 내린 2059.23로 장을 마쳤다. 전날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합의됐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 금리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장중 하락 전환했다. 개인이 1680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1억원, 1206억원어치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대장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24%, -6.66% 내렸다. NAVER와 현대차는 보합 마감했고, 한국전력(2.24%), 아모레퍼시픽(0.5%), 삼성에스디에스(1.77%) 등이 올랐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3.09%)의 상승폭이 컸고 의약품, 유통업, 의료정밀 등도 2%대 상승률을 보였다. 보험, 운수장비, 제조업 등은 약보합권을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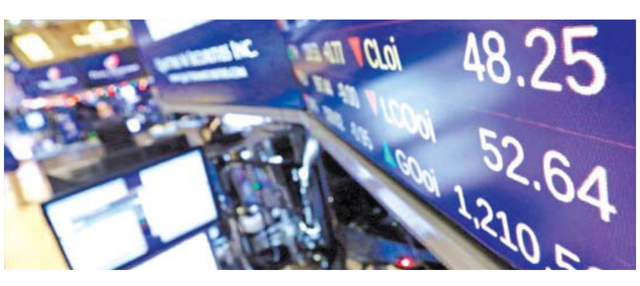
코스닥지수는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7.66포인트(1.02%) 상승한 757.12를 기록하며 사흘째 상승했다. 기관이 382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01억원, 21억원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종목들은 상승 종목이 우세했다. 동서(1.87%), 바이로메드(0.06%), 파라다이스(3.23%), 로엔(7.07%) 등이 올랐고 다음카카오, 메디톡스, 웹젠 등은 1%대 하락률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출판매체복제(6.21%), 오락문화(3.15%), 음식료담배(2.80%) 등이 오른 반면 반도체, 섬유의류, IT SW, 인터넷 등은 약보합 마감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12원(1.06%) 오른 1142.60원을 기록했다.

/김보배 기자



국내 조선업계 2분기 실적 명암

삼성 '맑음' vs 현대·미포·대우 '흐림'

2분기 국내 조선업체 실적 전망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삼성중공업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업체들은 과거 저가수주 경쟁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탓에 주가도 오랜 침체를 겪고 있다. 다만 최근 저유가 상황에서도 삼성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수주에 잇달아 성공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국제유가 하락 우려가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번지면서 조선주를 끌어내렸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3.36%(4000원) 하락한 11만5000원, 현대미포조선은 3.42%(2300원) 내린 6만5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대우조선해양은 낙폭이 더 컸다. 전날보다 6.02%(800원) 하락해 1만2500원을 기록하면서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1.42%(250원) 내린 1만7400원으로 장을 마쳐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합산 수주액 하향정체"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조선업체의 신규수주 성적에 따라 주가 흐름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선업체 모두에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유안타증권은 "조선 4사 합산 수주액은 지난 2014년 439억불에서 올해 400억 달러, 2016년 402억 달러로 하향 정체가 예상된다"며 "삼성은 FLNG(부유식LNG생산설비)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분기 국내 조선업체 실적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수주목표 60% 달성으로 웃는 반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은 18~27%에 그쳐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연합뉴스

삼성
올해 대규모 수주 성공

현대·미포·대우
턴어라운드 기대 '시기상조'

삼성중공업이 일주일 간 수주한 규모는 61억 달러에 이른다. 삼성중공업은 연간 수주목표 150억 달러 가운데 현재까지 총 90억 달러를 수주해 60%를 달성했다. 이미 지난해 총수주 규모 73억 달러를 넘어섰다.

◆실적 불확실성…신규수주가 관건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은 부진한 수주 실적에 따라 향후 실적 전망이 여전히 암울하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대중공업은 2분기 828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전분기(-1924억원) 대비 흑자 전환할 것"이라면서도 "흑자 기조로 돌아섰음에도 신규수주 부진으로 2016~2017년 실적 우려감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5월 누적 수주실적은 연간 목표의 25%에 불과하고, 신규수주 회복 없이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현대미포조선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375억원으로 전분기(167억원)보다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상반기 수주실적은 연간 목표에 18%에 불과하고 하반기 상황도 녹록치 않아 목표치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연말까지 영업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

금융회장들 '소통경영' 위해 무대 올랐다

윤종규·김정태·김용환 회장의 리더십 주목
다양한 행사 통해 대화의 장 넓혀 의견 공유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계급장'을 떼고 소통에 나섰다.

합병과 취임으로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다잡고 하반기 경영방침을 소개하는 한편 열린 대화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들은 'CEO와 대화'의 장을 마련해 격의없이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문화이벤트를 통해 임직원들의 복지와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다.

◆ 윤종규 KB금융회장, "새식구와 교감"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3일 오후 KB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그룹 CEO와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자회사로 편입된 KB손보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룹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는 자유주제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 1부와 만찬과 함께 화합의 시간으로 이어진 2부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직원들의 좌석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간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 참석한 전 직원들에게 4가지 종류의 기념도서를 준비해 직원이 직접 취향에 맞게 고르게 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KB금융 관계자는 "새로운 가족이 된 KB손해보험 직원들과 'ONE FIRM! ONE KB!'를 위한 소중한 첫 번째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장소와 형태의 소통행사를 통해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경영철학을 공유하는 등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하나·외환銀 통합 이끈 '뚝심' 리더십

최근 은행 통합을 이끌어낸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의 리더십도 눈길을 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두번째)이 직원들의 즉석 질문에 대해 답하며 영업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하나금융 제공

지난 13일 하나금융과 외환 노조는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조기통합을 추진한지 1년여 만의 결실이다.

여기에는 김 회장의 뚝심 리더십이 한몫을 했다.

김 회장은 그간 대구와 부산, 울산, 경인 지역 등을 돌며 직원들과 소통했다. 이어 지난 주말 노조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통합의 첫 단추를 끼웠다.

그는 또 지난 10일 하나·외환은행 우수 영업직원 200명이 참석한 '2015 마케팅영웅-영업의 新' 행사에서 자신의 경영철학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이날 사전 준비 없이 즉석에서 직원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토크콘서트 통해 영업비법을 들려주고 직원들의 고민도 상담했다.

◆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 "소통경영 확대 할것"

올해 4월 말 취임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영업현장을 돌며 소통경영에 나섰다.

김 회장은 지난달 11일 농협은행 가락시장지점과 서울영업본부 방문을 시작으로 영업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사내게시판에 'CEO와의 대화방'도 개설했다. 이를 통해 농협금융 발전에 관한 각종 개선사항을 직접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4일에는 농협은행 신입직원에게 '우리의 꿈을 디자인하자'는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전국 자회사 영업점을 연중 지속적으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사기 진작 등 소통경영확대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현장방문시) 보고와 의전을 최소화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농협금융을 평소 소신인 '4대 경영나침반(신뢰·소통·현장·스피드)'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직을 하나로 뭉치게해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신한은행, '신한환경사진공모전' 시상식 신한환경사진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윤혜정씨(맨 왼쪽)가 신한은행 왕태욱 부행장(가운데)과 환경부 박광석 환경정책국장(맨 오른쪽)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밴사-대형가맹점 간 리베이트 적발시 처벌

금융당국, 결제안정성·신용정보보호 의무 부과

오는 21일부터 부가통신업자(VAN·밴)가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적발되면 최고 5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밴사는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하되 등록제로 운용되며 결제안정성과 신용정보보호 의무 등이 부과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마련,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금 20억원 이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춘 밴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밴사란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 카드전표 매입, 관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자본금은 3만개 이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사의 경우 10억원으로 낮춰진다.

기존 밴사는 1년간의 등록 유예 기간을 둔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밴사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법인이나 임직원을 제재키로 했다.

특히 대형가맹점과 밴사간 리베이트를 강력히 막기로 했다.

이에 밴사가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밴 대리점(가맹점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에 위탁해 등록제로 운용하고 여신협회에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밴사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를 등록하되, 카드사-가맹점 직거래시에는 가맹점이 등록토록 했다. 미등록 단말기 사용시에는 가맹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시행령'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귀농어업인과 후계 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동일인 최고 보증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이다. /백아란 기자

하나銀, 약속지키면 우대금리혜택 적용

'난 할 수 있어 적금2' 판매

담배를 끊고 식사 중 가족과의 대화에 집중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금이 나왔다.

14일 하나은행은 자신을 위한 약속 하나만으로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난 할 수 있어 적금 2'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설정할 경우 0.2%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약속'은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하기 ▲차량요일제 참여 ▲식사 중 핸드폰 끄고 가족과 얘기하기 ▲금주·금연 도전 등 사회와 가족는 물론 자신을 위한 일들까지 소소한 약속이면 충분하다.

또 스마트폰뱅킹과 인터넷뱅킹,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시 0.3%의 우대금리를 준다.

아울러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 앱인 '하나N 뱅크' 가입 고객은 ▲급여이체 ▲핸드폰요금 이체 ▲관리비 이체 ▲외국환거래은행 등록 등 부수거래 실적에 따라 최대 2.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1.8%로 최대 2.5%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3%의 금리를 제공한다. 1개월에 최대 1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로 스마트폰뱅킹과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들 스스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동부화재, 업계 첫 '글로벌 인턴십 제도' 실시

동부화재가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와 현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손보업계 최초로 글로벌 인턴십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동부화재는 올해 1월 글로벌 인턴십 제도를 도입, 총 6주 동안 합숙교육 및 다양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보험업무와 한국의 기업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동부화재는 해외국가 출신의 국내 유학생 중 한국문화와 조직생활에 대한 이해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확보해 향후 해외사무소나 지점 채용시 활용할 방침이다.

/김보배 기자 bobae@

분양시장 큰 손 '에코세대' 유혹하는 건설사

<20대 중반~30대 후반>

여가·교육 중시+차별화된 커뮤니티·조경시설 관심
실제 거주 목적으로 찾는 수요자들 위해 특화설계

에코세대가 주택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하면서 이들을 자극할 수 있는 각종 특화설계가 선보이고 있다.

에코세대란 1979~1992년 사이에 태어나 현재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의 나이대를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저금리에 돈을 모으기 어려워지자 수익형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거나 전세난에 지쳐 주택을 사는 일이 많아지면서 베이비붐세대를 제치고 주택시장 전면에 등장했다.

건설사들이 실용적이면서도 트렌드에 민감한 에코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을 잇달아 공급하는 것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에코세대' 인구는 전체(4799만 명)의 34.4%에 이르는 954만 명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이 지난 4월 경기도 광주 태전지구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태전' 계약자만 보더라도 20~30대가 42%를 차지했다.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부천 약대동에서 분양한 '부천3차 아이파크' 역시 사전관심 고객의 50%가 20~30대로 파악됐다.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는 주택을 더 이상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용도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보니 여가와 자녀교육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서 차별화된 커뮤니티·조경시설을 높게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자란 에코세대는 실용적이면서도 여가와 가족간 의사소통 등에 관심이 많고, 트렌드에 민감한 편"이라며 "이 같은 20~30대 수요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야외골프장. /롯데건설 제공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경기 용인시 중동에 들어선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는 SDA삼육외국어학원과 제휴를 맺고 입주민들에게 우선 등록권, 수강료 할인, 교육·유학 상담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200석 규모의 대형독서실과 북카페를 조성했다. 자연체험 학습장과 30~50m 규모의 6홀 미니 형 파3 골프장도 설치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공급될 '연제 롯데캐슬&데시앙'은 단지 내 독서실, 어린이공부방, 작은도서관 등은 물론 어린이집을 배치해 자녀교육을 돕는다. 봄길, 여름광장, 가을산책로, 수경시설 등의 4계절의 테마공간을 구성해 가족들이 함께 하는 조경시설도 제공한다.

세종시 3-1생활권에서 분양되는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3차' 역시 아이 교육을 위한 책놀이터를 조성한다. 수변테라스, 소나무숲, 야외체험을 위한 이팝나무숲 캠핑장, 플라워 아트리움 등의 조경시설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 평택 동삭2지구의 '자이 더 익스프레스'도 가족형 텃밭과 야외캠핑시설 등을 만든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계약자들이 젊어지고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많다 보니 건설사들도 평면은 기본이고, 커뮤니티시설과 조경에까지 신경을 쓰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스마트 LED 전등, 세종시에 첫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I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LED 전등을 개발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시범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단지는 1-3생활권 M5블럭 국민임대주택(1680가구)과 2-2생활권 M2블럭 공공임대주택(1164가구)이다.

LH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이 전등은 IT센서를 이용해 미리 설정해 놓은 시간에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거실 전등을 자동으로 켜고 끄는 기능을 갖췄다. 리모컨으로 빛의 밝기와 전력 소모량을 10~100%까지 10단계로 조절할 수도 있다.

LED 조명등은 수명이 5만 시간에 달해 거실 전등을 하루 6시간씩 켜놓는다고 가정할 때 약 2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특히 LED 전등에 IT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면 일반 가정에서 전력 소비가 월 18kWh(30일x6시간x100W/1시간) 줄어 3800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 시스템 확산으로 1000만 세대가 100W씩 절전하면 국내 원전 1기 평균 용량인 100만㎾의 전력에너지 절감이 가능해진다.

LH는 지난해부터 소형 임대주택 거실전등 설계 시 형광등이 아닌 LED 조명등을 적용해 왔으며 중형주택으로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스마트 LED 전등은 주택 건설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IT융합기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LH는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조도 조절형 재실감지 LED센서 전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

반도건설, 청주 사직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반도건설이 부산 구포3구역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재개발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반도건설은 청주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원건설과 함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청주 사직3구역 조감도.

청주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총 도급액 3600억원 규모다. 2017년 10월 착공과 함께 일반 분양돼 2020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청주 사직3구역은 청주 도심에 있어 청주의료원, 충북대학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과 인접해 있다. 차량 15분 거리에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청주공항 이용이 쉽다. 한발초, 흥덕초, 청주중 등의 교육시설도 가깝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반도건설만의 남다른 설계와 상품 노하우를 녹여 청주 사직3구역에 랜드마크 아파트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한화생명, 콜센터 직원에 수박 선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 콜센터에서 상담사들과 수박을 먹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서울 아파트 전세가, 2분기도 3% 넘게 올라

국지적 강세 지속되는 중 경기·인천·신도시도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분기에도 3% 넘게 올랐다. 서울 전세 수요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경기·인천·신도시 전세가격도 2%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3.13%의 상승률을 보였다.

매매 전환 수요가 늘면서 전세 거래량은 다소 줄었지만 매물 부족과 재건축 이주수요 영향으로 국지적인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4.25% 오른 송파구를 시작으로 금천구(3.83%), 중랑구(3.82%), 강북구(3.78%), 도봉구(3.72%), 강남구(3.71%), 강서구(3.65%), 관악구(3.60%), 성북구(3.46%) 등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에서 밀려난 임차인이 유입되면서 경기·인천과 신도시의 전세가도 각각 2.24%, 1.92%가 상향조정됐다.

경기·인천에서는 고양(4.41%), 김포(3.71%), 의왕(3.49%), 파주(3.42%), 하남(3.30%), 구리(3.00%), 광명(2.99%), 양주(2.91%), 과천(2.57%) 순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신도시 중에서는 파주운정(3.70%), 광교(3.62%), 산본(3.30%), 중동(3.05%), 김포(2.96%), 평촌(2.15%), 일산(1.93%) 등이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3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4408가구로 2분기(6662가구)보다 감소해 서울 지역의 전셋값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3분기 2만1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분기 중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1.34% ▲신도시 1.20% ▲경기·인천 1.09% 순이다. 5월부터 재건축 가능연한이 단축된 데다 금리 하락에 따른 매입 수요 확대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은 매매가격이 저렴하면서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에서 강세장은 연출했다. 강남구(1.95%), 금천구(1.86%), 중랑구(1.81%), 강서구(1.62%), 동대문구(1.62%), 강동구(1.57%), 중구(1.47%), 성북구(1.39%), 서초구(1.34%), 송파구(1.32%) 순으로 상승했다.

신도시에서는 김포한강(3.71%)이, 경기·인천에서는 하남(2.23%)이 가장 많이 올랐다. /박선옥 기자

정몽구, 글로벌 맞춤형 신차로 승부수

현대기아차 20여 개국 해외법인장 회의
투싼·크레타·K5·씨드 4대 전략차종 주목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글로벌 판매 부진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로 전략차종 4개를 꼽았다. 판매량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 회장의 주문에 따라 업계는 4개 전략차종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정 회장은 전날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전 세계 20여 개국 해외법인장 60여명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하반기 실적을 개선시킬 전략차종으로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크레타, 기아차 K5·씨드를 지목했다.

현대차가 지난달 인도 시장에 출시한 소형 SUV 크레타는 한 달간 1614대가 판매됐다. 크레타는 내달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도 출시되고 내년 이후에는 러시아와 브라질에도 출시될 예정이다. 1.6 듀얼 VTVT 가솔린 엔진은 최대출력 123마력에 6단 수동 변속기를 장착했다. 1.6 CRDi VGT 디젤 엔진은 128마력에 6단 수동 변속기 또는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다. 가격은 80만~120만 루피아(약 1400만~2000만원)다.



현대차 소형 SUV 크레타.

기아차는 해치백 모델인 씨드 개조차를 출시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최근 발표된 2016년형 씨드는 엔진으로 유로6를 만족한 1.0 3기통 에코터보, 1.4 MPI(100마력), 1.6 GDi 가솔린(128마력), 1.6 CRDi(110마력) 및 1.6 U2 VGT(136마력) 디젤 등을 탑재했다.

트랜스미션은 1.6 U2 VGT 디젤, 1.0 에코터보 엔진을 적용한 모델만 7단DCT를 선택할 수 있다. 1.6 GDi 가솔린 모델은 6단DCT를 고를 수 있다. 기본 트랜스미션은 모두 6단 수동변속기다. 2016년형 씨드 구매 시 7년 또는 약 16만km에서 품질 보장된다. 현재 씨드는 영국에서 1만4305 파운드(한화 약 2527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현대차는 소형 SUV 투싼을 8~9월 미국·유럽, 10월에는 중국 등지에 출시할 예정이다. 투싼에 탑재된 R2.0 디젤 엔진은 최고출력 186마력, 최대토크 41.0kg·m의 성능을 낸다. 공인연비는 14.4km/ℓ다. U2 1.7 디젤 엔진은 최고출력 141마력, 최대토크 34.7kg·m, 공인연비 15.6km/ℓ다. 판매가격은 2340만~2920만원에 책정됐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연평균 국내 4만 5000대, 해외 52만5000대 등 총 57만대의 투싼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기아차 중형 세단 신형 K5는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난달 22일 이후 영업일수 11일 만에 계약대수가 6000대를 돌파했다. 기아차는 이 여세를 몰아 유럽에서도 K5 연내 출시해 돌풍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K5는 신형 K5는 MX·SX의 듀얼 디자인으로 출시됐다. 파워트레인은 모두 5가지로 볼륨 모델인 2.0가솔린, 1.7디젤, 2.0 LPI는 2가지 디자인 중 선택할 수 있다. 1.6 터보와 2.0 터보는 고성능 이미지에 맞춰 K5 SX 디자인을 적용했다. 가격은 2235만~3145만원에 책정됐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삼성전자-리움 '갤럭시 탭A 워크북' 프로그램 운영

정교한 작품 감상 가능
체험형 콘텐츠도 지원

삼성전자는 삼성미술관 리움과 함께 '갤럭시 탭A'를 활용한 디지털 워크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삼성 태블릿을 활용한 '갤럭시 탭A 디지털 워크북'은 현재 리움에서 진행중인 '세밀가귀(細密可貴): 한국미술의 품격' 전시에 대한 정보와 S펜 활용 컨텐츠를 제공한다.

관람객들은 '갤럭시 탭A 디지털 워크북'에서 작품의 이미지를 확대 감상하면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문양의 형태나 고유한 제작기법 등 작품의 정교한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다.

또 '갤럭시 탭A'의 'S펜'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퀴즈 풀기,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체험형 콘텐츠로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작품을 감상하며 한국미술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람객들이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진행중인 '세밀가귀(細密可貴): 한국미술의 품격' 전에서 '갤럭시 탭A'를 활용한 디지털 워크북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갤럭시 탭A'는 S펜을 탑재해 학업이나 업무 활용에 더욱 편리하며 두께 7.5mm, 무게 487g으로 휴대성을 강화했다. 특히 종이책과 같은 4대3의 화면 비율로 전시 감상과 교육 활용 시 뛰어난 가독성을 갖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미술과 첨단 디지털 기기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전시 관람 문화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미술의 세밀함과 화려함, 정교함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전시되는 '세밀가귀(細密可貴): 한국미술의 품격' 전은 오는 9월 13일까지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진행된다. '갤럭시 탭A 디지털 워크북'은 리움 홈페이지(http://leeum.samsungfoundation.org/)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조한진 기자 hjc@

뮤직서비스 '밀크' 9개월 만에 400만 다운

삼성전자, 최단기록 달성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출시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MILK)'(사진)가 출시 9개월만에 다운로드 400만건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내 음악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중 최단기록이다.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는 사용자가 일일이 음악을 선택할 필요 없이 원하는 장르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선곡된 음악을 들려주는 서비스다.

현재 '밀크'는 340만곡 이상의 음원과 200여 개의 스테이션을 통해 실시간 차트와 최신 음악은 물론 국내 인디, 트로트, 뉴에이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밀크'는 올해 4월부터 원하는 음악을 선택해 '플레이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JYP와 함께 '식스틴(SIXTEEN)'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사용자 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밀크 서비스의 등장으로 음악 시장에 새로운 사용자가 늘어나는 등 관련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원만하게 재계약을 체결한 만큼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와 국내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LG전자 '대한민국 문화유산 사진공모전' 개최

LG전자가 올레드 TV의 압도적 화질로 한국의 문화유산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는 문화재청, 캐논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유산 사진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이달 30일까지 대한민국의 유형 문화재를 촬영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을 내달 12일부터 압도적 화질의 올레드 TV에 담아 전시하는 행사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홈페이지(http://bit.ly/1O5LFd3)에 세계문화유산, 궁궐 및 왕릉, 일반문화재 등 한국의 유형문화재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출품은 1인당 3점까지 된다.

LG전자는 사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내달 5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수상자에게 올레드 TV, 캐논 DSLR 카메라, 미니빔 등을 증정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8월 12~24일 경복궁 내 근정전에서 LG 올레드 TV를 통해 전시된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방문위 새 위원장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한국방문위원회(방문위)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 박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을 역임하면서 관광분야 전문 경영인으로서 역량을 겸비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정받아 선출됐다.

앞으로 방문위는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6-2018 한국방문의 해 사업과 친절한 대한민국 등과 같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한중우호협회 회장뿐 아니라 9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의 한국 측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은 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침체된 관광산업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방문위는 전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1분기 판매 늘었지만… 영업익은 적자로

전년比 매출·당기순이익, 4분의 1 웃돌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대표 백정현)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판매량과 매출이 전년 대비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재규어랜드로버는 올 1분기(1~3월) 매출액 1658억5500만원, 영업손실 2억7600만원, 당기순이익 21억7100만원의 실적을 냈다.

재규어랜드로버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4739억원, 영업이익 414억원, 당기순이익 69억원 규모였다.

전년 대비 올 1분기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4분의 1을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4로 나누면 분기당 영업이익이 100억원 이상에서 영업손실로 돌아선 것이다.

판매량을 비교해 봐도 이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랜드로버는 1분기 1655대가 팔려 전년 동기(722대) 대비 129.2% 증가했다.

수입차 브랜드별 1~3월 누적 점유율은 1.62%에서 2.81%로 1.19%p 올라섰다.

등록 브랜드는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포드, 렉서스, 미니, 토요타, 랜드로버, 크라이슬러, 혼다, 닛산, 푸조, 볼보, 재규어, 포르쉐, 인피니티, 피아트, 시트로엥, 캐딜락,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22개 업체다.



재규어 XJ.

이 기간 재규어 역시 751대 판매로 지난해 동기(561대) 대비 33.9% 늘었다.

점유율은 1.26%에서 1.27%로 상승했다.

한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2008년 회사설립 이후 매년 1회 연단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오다 올해 들어 1분기 감사보고서를 전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재규어랜드로버 관계자는 "본사에서 회계처리 기간을 매년 4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잡기 때문에 이에 맞추기 위해 1분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국내 법규상 15개월 단위로는 안 된다고 해 이번에 한 번 하고 앞으로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적자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현대제철, 2025년 매출 31조 글로벌기업 비전선포

현대제철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며 종합소재 기반의 가치창출 기업을 향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대제철은 14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우유철 부회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열고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라는 새 비전을 선보였다.

또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2020년 26조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2025년 매출 31조원 규모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2020년까지 특수강 분야에서 1조5000억원, 해외 생산설비 증대와 해외 냉연스틸서비스센터(SSC) 분야에서 2조5000억원, 차량경량화 분야에서 1조원, 신규제품 및 시장 확대를 통해 1조5000억원, 이밖에 강관제품 다변화와 단조사업 효율화로 총 26조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개념을 엔지니어링과 서비스까지 확장함으로써 유무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매출 31조원 규모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현재 철강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소재개념을 비철·비금속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르노삼성, 중소 협력사와 친환경시스템 공유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프랑수아 프로보)는 중소 협력사와 '대·중소 그린 파트너쉽' 2차년도 협약식을 14일 부산공장에서 열었다.

그린 파트너쉽은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친환경 공급망 체계 구축 사업이다.

올해부터 강화된 국내 화학물질 법규와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협력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 ▲정보기술(IT) 시스템 개발 ▲사업장 내 고위험우려물질(SVHCs) 사용량 저감 ▲자원생산성 향상 ▲전문 교육을 통한 중소 협력사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 5가지 항목을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다.



르노삼성 전기차 SM3 Z.E.

르노삼성은 지난해 7월 산업부와 협약을 통해 자동차업계 최초로 해당 사업에 착수(과제수행기간 2년)해 1차년도에는 15개 협력사와 함께 그린 파트너쉽의 기반이 되는 IT시스템 개발과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정필 기자

삼성전기, 사업재편 마무리… 일부 모듈사업 분사

다층박막성형·고주파 회로·광학기술 등에 역량 집중

삼성전기가 파워·튜너와 전자가격표시기(ESL) 사업의 분사를 결정하면서 사업재편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삼성전기는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파워, 튜너, ESL 제품 등 일부 모듈사업을 분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로써 삼성전기는 소재와 다층박막성형, 고주파 회로, 광학기술 등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특히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 카메라모듈 등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MLCC는 모든 전자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하는 전자부품이다. 카메라모듈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략사업이다.

삼성전기는 이번 분사를 통해 사업재편 작업을 일단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분사 등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앞서 삼성전기는 지난달 26일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모터 생산·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분사가 결정된 자산과 인력은 종업원 지주회사 형태의 신설법인에 양도된다. 삼성전기는 다음 달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설법인의 대표는 삼성전기 디지털모듈(DM) 사업부장인 전성호 부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기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해 분사를 결정한데 이어 해당 사업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종업원 500여명(해외사업장 포함 2200여명)이 신설법인으로 자리를 옮기고 일정 규모의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한진 기자 hjc@

금호폴리켐, EPDM 추가 증설 검토… 세계 2위 노린다

금호석유화학 계열사인 금호폴리켐은 고기능성 합성고무(EPDM)추가 증설 검토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여수 2공장 생산라인 6만톤 증설을 완료하고 2주 만에 또 다시 증설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금호폴리켐은 현재 총 생산능력 22만톤으로 세계 3위 EPDM 생산업체다.

증설이 되면 업계 2위인 미국의 엑손모빌(29만5000톤)과 동등한 시장 지위를 점하게 된다고 사측은 전했다. 1위는 독일의 랑세스(48만톤)다.



금호폴리켐 여수 2공장. /금호폴리켐 제공

금호폴리켐은 아시아지역의 자동차 부품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해 2013년과 올해 EPDM를 6만톤씩 증설해 3년간 생산능력을 2배 이상 증대했다.

추가 증설에 필요한 투자금도 기존 대비 30% 절감한 1000억원 수준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비용절감을 통해 원가경쟁력도 높인다.

EPDM은 강도와 내후성이 우수한 고기능성 합성고무다.

고강도 반발탄성이 필요한 자동차 범퍼, 내오존성이나 내기후성이 요구되는 자동차 웨더스트립, 세탁기 튜브고무, 선박용 케이블 등에 주로 사용된다. /정용기 기자 yonggi@

두산계열 오리콤, 한화계열 광고회사 한컴 인수

두산그룹 계열 광고회사 오리콤(사장 고영섭)은 한화그룹 계열 광고회사 한컴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 계약을 14일 체결했다.

사측에 따르면 그룹 계열 광고회사 간 인수는 오리콤이 업계 처음이다.

업계 톱10 위치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두 회사의 만남이 이뤄지면서 오리콤은 중대형에서 대형 광고회사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컴 인수는 오리콤이 수년 전부터 변화하는 광고환경과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IMC(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아이디어 그룹에서 종합 콘텐트 그룹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다. 한컴은 지금 회사명 그대로 독립 경영한다. /이정필 기자


★★★★★
영화 속 서핑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인생과 같다!
- The warp -
아들바보 억척엄마의 자아찾기
라이드
:나에게로의 여행
RIDE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헬렌 헌트
〈더 기버:기억전달자〉 브렌튼 스웨이츠
7월 16일 대개봉!
ULTRAMEDIA
|감독/주연|헬렌 헌트 |수입/배급| t.cast cinecube |15세 이상 관람가|
SIX SALES



MWC 전시관 상하이 뉴인터내셔널엑스포센터(SNIEC)에서 SK텔레콤 전시 도우미들이 전시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스마트한 미래 생활상 한눈에

SKT, MWC 상하이서 IoT 플랫폼 전시

SK텔레콤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상하이 2015'에서 E-커머스·라이프웨어 등 차세대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를 선보인다.

14일 SK텔레콤은 지난 4월 장동현 사장이 신규 성장 동력으로 선언했던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제품들을 MWC 상하이에서 대거 선보이며 스마트한 미래 생활상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행사장의 전시 부스내에 스마트 쇼퍼·신용카드·스탬프 등 매장 방문 전부터 구매, 결제에 이르는 쇼핑 생활 전반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커머스 플랫폼들을 전시한다. 스마트 쇼퍼는 대형 쇼핑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제품 바코드만 찍으면 결제와 배송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플랫폼이다. 소비자는 쾌적한 쇼핑을 즐길 수 있고 상점은 소비자들의 쇼핑동선·구매패턴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수십 장의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한 장의 전자카드에 저장할 수 있는 스마트 신용카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활용 중인 종이 스탬프 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옮겨놓은 스마트 스탬프 등도 함께 전시된다.

행사에서 SK텔레콤은 E-커머스 뿐만 아니라 개인의 환경과 기호에 최적화된 다양한 라이프웨어를 전시 기간 동안 선보이는 것은 물론 중국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판매 계약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행사에서 전시 참여 외에도 5G 선점을 향한 행보를 가속화한다. 최진성 CTO는 상하이 현지에서 열리는 GSMA 컨퍼런스 '5G 리더십 인 더 아시아' 세션에서 5G 네트워크 진화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SK텔레콤의 혁신적인 네트워크 기술 개발 성과도 공유한다.

/정문경 기자 hm0108@



금호아시아나, 찾아가는 사랑의 금호아트홀 개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사장 박삼구)은 '찾아가는 사랑의 금호아트홀' 음악회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에는 올해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27), 피아니스트 김현수(29)가 클래식 공연을 펼친다. 10일 강원도 원주 공립특수교육기관 청원학교, 13일 경기도 의정부시 희망학교에 이어 15일 오전 11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은학교를 찾을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美 마이크론 노리는 中 쯔광

외신 인수설 보도에 삼성·SK하이닉스 긴장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기업 쯔광그룹(紫光集團)의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수설이 제기되면서다.

14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쯔광그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액 230억 달러(주당 21 달러)를 제시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양사는 미세공정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HS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올해 1분이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점유율(매출액 기준) 44.1%, 27.6%로 투톱 체제를 공고히 했다. 이 기간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21.2%였다.

그러나 시장 3위 마이크 마이크론이 쯔광그룹 품에 들어갈 경우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기업이 공격적인 투자를 앞세워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액정표시장치(LCD)의 경우와 같이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단 시장은 쯔광그룹의 마이크론 인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마이크론은 경영권 인수를 제안 받은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삼성전자의 D램 모듈. /삼성전자 제공

박영주 현대증권 연구원은 "인수가격이 낮고 미국의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가 마이크론이 중국 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사업 진출 가능성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6.66% 내린 3만78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52주 신저가(3만7800원)도 기록했다. 삼성전자도 3.24% 떨어진 122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SKT, 장애청소년들의 자활 돕는다

IT 챌린지 대회 개최

장애청소년들의 정보 검색 능력 향상과 자활 의지 확립을 북돋우기 위한 국내 대표 대회인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대회'가 열린다.

SK텔레콤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함께 일산 킨텍스에서 '2015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대회'(이하 IT챌린지 대회)를 14일 개최했다.

올해로 17년째인 IT챌린지 대회는 SK텔레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 199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총 3300여명의 장애청소년들이 대회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56개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14~24세의 장애청소년 130여명이 학교의 추천을 받아 참가한다. 갤럭시탭 10.1, 아이패드 2 등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스마트 챌린지', '스마트 서바이벌' 등 두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룬다.



SK텔레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개최한 '장애청소년 IT챌린지대회' 행사에서 장애청소년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 정보 검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챌린지'에 참가해 문제를 풀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스마트 챌린지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출제한 인터넷 정보검색부문의 총 12문제를 제한시간 60분(장애별 추가시간 부여) 동안 맞추는 경연이다.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시에는 인터넷 정보검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시각, 지체, 청각, 지적 등 각 장애별 3위까지 시상한다.

스마트 서바이벌은 상식·수학·과학 등 다양한 주제의 문제를 최종 1인이 남을 때까지 푸는 '도전 골든벨' 실시간 토너먼트 경기로, 역시 장애별 3위까지 시상한다.

특히 대회는 장애 청소년들의 IT 활용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동기부여는 물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문경 기자

한화, 지역 어르신들과 시원한 여름나기 행사

㈜한화는 임직원들과 시원한 음식을 나누고 지역 어르신들께 수박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화는 무더위에 지친 전 임직원을 격려하고, 서울 장교동 본사 인근지역 어르신이 더위를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전날 열린 행사에 참석한 한화 임직원들은 수박화채, 팥빙수, 쿠키를 함께 먹었다.

또 서울 마장동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수박을 나누는 한편, 어르신들께 전달할 열무김치와 여름 생필품 키트를 만들었다.



이태종 한화 방산부문 사장은 "무더운 날씨에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음식을 마련했다. 임직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며 "뿐만 아니라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도 함께 힘을 내셔서 이 여름을 건강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공영홈쇼핑 개국… 수익성 확보 '관건'

낮은 판매수수료·비주류 채널 등 우려

정부가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한 공영홈쇼핑(채널명 아임쇼핑·대표 이영필)이 14일 개국했다.

공영홈쇼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 디지털큐브빌딩에서 개국식을 열고 아임쇼핑 첫 방송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설 발표한 후 농협(45%)·수협(5%)·중기유통센터(50%)가 출자한 지 1년여 만이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농축수산물 판매 전용 채널이다.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되는 혁신적인 중기제품을 소개·판매하고, 농축수산식품 등을 온오프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판매·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인의 꿈을 실현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낮은 판매수수료와 비주류 채널, 기존 홈쇼핑 업계와의 채널 경쟁 등의 이유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과 농어업 경영체를 위해 판매 수수료율을 기존 홈쇼핑 평균(34.4%)보다 11.4% 포인트 낮춘 23%로 책정했다. 여기에 4년 간 수수료를 2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판매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모바일 위주로 운영하는 등 기존 홈쇼핑사와는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산물로만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율을 대폭 낮췄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상파와는 거리가 있는 채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영홈쇼핑 채널은 IPTV(인터넷TV)는 KT 22번, SK브로드밴드 3번, LG U+ 20번이고 종합유선방송은 C&M 20번, CMB 21번 등 20번대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지상파 채널 진입 시도와 이에 따른 수수료 인상으로 업체 간 출혈 경쟁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공영 TV홈쇼핑 승인정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TV홈쇼핑사의 연도별 송출수수료는 2009년 4093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4857억원, 2011년 6383억원, 2012년 8704억원, 2013년 9708억원 등이다. 연평균 24.1%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홈쇼핑은 고객에게 무이자할부 등 판촉비를 5~10% 제공하는데, 오늘 개국한 공영 홈쇼핑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며 "판촉비가 제공되지 않은 것은 판매 수수료가 낮아 최대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혜택이 없는 상품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CJ "상고심 포기 안해… 재판 충실히 임할 것"

특사보다 대법원 판결 주시 정책 변화에 집행유예 기대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언급과 관련, CJ그룹은 신중한 분위기 속에 "상고 취하없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이재현(55·사진) CJ그룹 회장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가 이뤄져 일단 이번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상고를 취하하거나 조속히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CJ 측은 상고 취하없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상고 포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상고심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사면 소식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가능성이 검토된다면재계일원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CJ는 지난 13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에 요청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상고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2월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후 임명 제청된 박상옥 대법관의 인준이 늦어지면서 심리도 지연됐다.

지난 5월 박상옥 대법관 인준으로 대법원 2부가 4인 체제가 되면서 이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선고 날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CJ그룹은 특별사면보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회장의 장기 부재로 그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기업인 사면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던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의 기업인 사면에 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경우 이 회장의 상고심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계는 그동안 수차례 기업인 사면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땅콩회항' 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등이 발목을 잡아왔다. CJ그룹이 상고심을 포기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달라진 기조에 맞춰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새콤달콤 아오리사과 맛보세요" 농협유통(대표 조영조)은 14일 대구 경북능금농협에서 올해 첫 출하한 아오리(쓰가루) 사과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아오리 사과는 사과 중 가장 먼저 출하되는 품종으로 초록색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농협유통제공

'카스'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맥주 됐다

오비맥주, MLB와 협약

오비맥주(대표 프레데리코 프레이레)는 카스가 미국 메이저리그(MLB)의 공식맥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MLB측과의 협약에 따라 2015년도 MLB의 월드시리즈·챔피언십시리즈·올스타전 각 한 경기씩 총 세 경기에서 카스 가상광고(Virtual AD)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제품이 MLB 공식맥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스의 가상광고를 만나 볼 수 있는 경기는 15일 오전 8시30분(한국시간)에 시작하는 올스타전이다. 카스의 가상광고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전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우리 고유의 맥주 브랜드 수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카스가 공식맥주로 노출돼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1cindiun@

화장품 브랜드숍 해외 공략 속도

네이처리퍼블릭·미샤 등 美·中서 매장 속속 오픈

국내 화장품 브랜드숍이 해외 공략에 속도를 낸다.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은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 1·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핵심 상권에 잇따라 매장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미국 LA 대표 한인 상권인 윌셔로드에 115㎡(35평) 규모의 매장을 열었다. 이달 말에는 캘리포니아 로랜하이츠점을 추가로 열어 미국 서부 상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체 측은 지난달 오픈한 캘리포니아 산타아니타점의 성공적인 안착과 높은 매출이 입소문이 난 데 이어 미국 11호점인 윌셔점이 문을 열면서 현지에서 가맹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도 매장을 열었다. 이달 초 북경남역에 연 매장은 약 100㎡(30평) 규모이며 북경중앙역에 이어 오픈한 네이처리퍼블릭의 중국 2호 매장이다.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원조 수딩젤인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 베라 92% 수딩젤'과 '슈퍼 오리진 CC크림' 등 유명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구입할 수 있어 더욱 믿음이 간다는 고객들의 반응과 함께 현지 가맹점 개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블씨엔씨(대표 서영필)미샤도 최근 홍콩 내 미샤 운영 전반을 맡아 줄 DKSH 홍콩과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 30일 코즈웨이베이와 침사추이의 면세점 두 곳에 입점을 완료했으며 이달에는 유엔롱(Yuen Long) 플라자에 단독 매장을 오픈했다. 국내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쇼핑 상권인 명동 매장도 재정비에 나섰다.

/김수정 기자 ksj0215@

초저칼로리 감미료 '알룰로스' 美 수출

CJ제일제당 2020년 7000억원 매출 목표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설탕에 가까운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설탕의 5% 수준인 차세대 감미료 '알룰로스' 상용화에 성공, 본격적인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향후 세계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2020년까지 알룰로스 매출을 7000억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알룰로스는 건포도나 무화과, 밀 등 자연계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1g당 0~0.2kcal에 불과하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올리고당을 이을 차세대 감미료로 주목받아 왔지만 대량 생산이 어려운 탓에 상용화가 어려웠다.

CJ제일제당은 올해 먼저 액상 형태의 기업용과 가정용 알룰로스 제품을 선보인 뒤 내년에는 분말 형태의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기지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21cindiun@

여성이 일하고 싶은 기업 '이베이코리아'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⑲ 이베이코리아



병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앞줄 왼쪽 일곱번째)와 임직원들이 서울 역삼동 이베이코리아 본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 제공

이베이코리아(대표 변광윤)에 재직 중인 A씨는 평소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회사에서 5년 근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한 달 유급 휴가인 '안식 휴가 제도' 기간에 아이와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면서 애정이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직장맘들에게 가장 큰 고민인 육아, 그리고 일과 개인 시간의 효율적인 밸런스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베이코리아는 특히 여성들에게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며 추천했다.

이베이코리아의 여직원과 워킹맘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는 '안식휴가제도'다. 안식휴가제도는 5년 근속직원에게 1개월간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다. 직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여행을 떠나거나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2005년 6월 이베이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도입했다.

이베이코리아는 또한 워킹맘을 위한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회사의 회의실과 사무실 주요 동선에는 휴게실과 함께 수유실이 배치돼 있다. 출산 후 복귀한 워킹맘들이 언제든지 위생적인 수유실을 이용해 모유를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휴게실 이용이 자유로워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한 직원은 "사내 분위기가 자율적인 분위기다. 누구라도 필요할 때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혀 눈치 볼 필요없다"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 '베이트리(Bay Tree)'도 운영돼 남녀 임직원의 육아부담을 줄였다. 최근 다양한 이슈로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베이코리아 직원은 언제라도 사내에 있는 베이트리를 방문해 내 아이를 확인할 수 있다.

5년 근속 시 한달간 유급 휴가 수유실 배치 어린이집 운영 등

지난해 매출 두 자릿수 신장 '직원 복리 = 능률 향상' 증명

이베이코리아는 또한 아이를 학교에 보내거나 다른 보육원에 맡기는 워킹맘을 위해 '시차 출퇴근 제도'를 도입했다. 8시부터 10시 사이 출근시간을 직원이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베이코리아에 근무하는 B씨는 이전 직장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출근했었다. 하지만 이베이코리아의 '시차 출퇴근 제도'로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여유롭게 회사로 출근할 수 있게 됐다.

B씨는 "직장을 옮기고 매일 아침 출근에 쫒기는 느낌이 사라졌다. 지금은 가정생활을 하다가 여유롭게 회사에 출근하는 느낌"이라며 "워킹맘에게는 아침에 주어지는 한 시간이 열 시간과 같은 여유를 준다"고 말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4시, 이베이코리아 본사는 조용해진다. '패밀리 데이' 때문이다. 이날은 직원 모두가 오후 4시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의무이다. 평소 분주하던 이베이코리아는 이날만큼은 일찍 텅 비게 된다. 패밀리 데이 제도는 워킹맘을 떠나 모든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미혼 사원들도 주말을 일찍 시작해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이 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원하는 이베이코리아 내에서는 원하는 복리 후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 후생 제도'도 제공한다. 이는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다. 자녀교육·주택자금·건강·리프레시·미래보장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며 분기마다 1인당 35만원의 자기 계발 비용도 제공한다.

이러한 복리후생과 워킹맘을 위한 제도를 바탕으로 이베이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7339억원, 영업이익 56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10.82%, 17.91% 신장한 수치이다. 다양한 복리 후생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며 '직원의 복리=능률향상'임을 증명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이베이코리아 직원 복지 제도

제도	세부 내용
안식 휴가 제도	5년 근속 직원에게 1개월간의 유급휴가 부여
넉넉한 휴게 공간	여직원만을 위한 휴게실과 임산부, 워킹맘을 위한 수유실 운영
시차 출·퇴근 제도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 조정
Family Day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어린이집 '베이트리'	직장 어린이집 운영
생일, 가족 기념일 쿠폰	임직원 생일 및 가족 기념일에 외식 상품권 지급
가족 기념일 휴가	연차와 별도로 집안 행사 등에 사용 가능한 특별 유급휴가 제공
카운셀링 프로그램	임직원 및 가족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한 카운셀링 / 코칭 프로그램 운영
여성 리더 커뮤니티 'KWIN'	팀장급 여성 직원들로 구성된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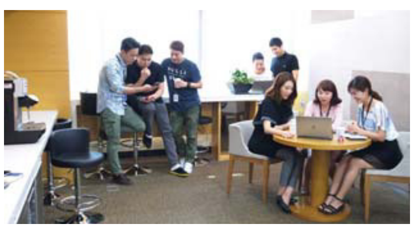
공동기획 : 여성가족부 metro

'직원이 곧 재산'… 가족까지 챙겨주는 일하기 좋은 기업

'케이윈'·'클럽 엑설런스' 등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대표 변광윤)가 다양한 복리 후생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카운슬링·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선 이베이 본사와 연계돼 운영 중인 글로벌 리더 교육 프로그램인 '케이윈(KWIN: Korea Women Initiative Network)'이 운영중이다. 팀장급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내 멘토·멘티 프로그램, 워크숍, 특별 강좌 등으로 진행된다.



케이윈 프로그램은 여성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며 양성평등적 기업문화가치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출산 후 복귀한 워킹맘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베이코리아 측에 따르면 대부분의 팀장급 여성들이 케이윈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높다.

이와 함께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카운셀링 프로그램'이 있다.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나 사회생활 문제·정신질환 등을 전문가가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직원들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 건강까지 관리해준다.

또 연 1회 성과가 뛰어난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클럽 엑설런스' 프로그램도 도입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이같은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와 직원 역량 강화 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해 올해 3월 5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베이코리아는 기업문화혁신·복리후생·우수인재육성 항목을 높게 평가 받았다. 취업선호도·근무환경·기업이미지·사회공헌·재무평가·성장성 등에서도 고른 점수를 받았다. /minus@

미니스커트, 척추 적신호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원인 관절이나 근육 통증 증상



무더위가 찾아오게 되면서 미니스커트를 자주 입는 여성들이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직장인 안모(28세)씨는 주 3회 정도 미니스커트를 입는데 어느 순간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끼곤 했다.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들이 원인이 된 것이다.

용인분당예스병원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20대 여성 환자들 266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1주에 평균 3회 이상 미니스커트를 입는 환자들이 43%인 115명에 달했다. 조사결과 미니스커트가 허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분당예스병원 전재균 원장은 "보통 여름철에는 발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허리 통증과 관련 질환도 흔하게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여름철 여성들은 허리 통증이 생겼을 경우 척추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짧은 미니스커트 착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특별한 외상이 없음에도 척추 관절이나 근육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허리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한다.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자신도 모르게 양쪽 무릎을 붙이려고 힘을 주고 서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 주변이 과도하게 긴장되고 피로해질 수 있다. 또한 보폭이 짧아지고 허리도 꼿꼿하게 세워야 하는 등 잘못된 보행 자세로 인해 주변 근육까지 긴장을 하게 되고 어깨나 허리의 혈액 잔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허리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 것.

허리디스크는 척추 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으로 뼈 사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충해 주는 디스크가 외부 요인에 의한 충격이나 평소의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한다. 최근에는 의상과 신발 등에서도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관광공사, 일본지역 마케팅 본격 개시

한국관광공사는 메르스 이후 한국관광 정상화 추진을 위해 일본지역 마케팅을 본격 재가동한다. 오는 17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센다이 노선 취항 25주년과 대한항공 아오모리노선 취항 20주년을 기념해 일본 동북지역 한국관광 캠페인 행사를 진행한다.

아오모리(13일) 1300명을 비롯, 히로사키(14일) 1300명, 센다이(16일) 1200명 등 약 3800명을 초청해 '한국관광 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일본 관광업계를 포함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난타, 드로잉쇼 등 한국의 대표적 넌버벌 상설 공연을 선보이는 이외에도 일본 지방 문화공연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일본에서 한국전통음식 요리연구가로 활동 중인 조선옥 선생의 한국요리교실도 진행하고, 현지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국음식 매력 홍보에도 나선다.

관광공사 임용묵 일본팀장은 "최근 5월말 방한 일본인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여 일본시장이 다시 침체된 상황"이라며 "7월 중 이번 행사와 항공사 공동 일본 여행업계, 언론인 초청 행사를 통해 한국관광 안전성을 집중 홍보하고, 8월부터는 대형 한류행사를 기획하는 등 방한시장 본격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공사는 아시아나항공(7.24~26), 대한항공(8.4~5)과 공동으로 일본 여행업자, 언론인 등 약 390명, 약 200명을 각각 순차적으로 초청해 한국관광 안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chisunti@

현대약품 '7월의 울림' 타악기 공연 개최

현대약품은 '7월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오는 18일 오후 3시 방배동 유중아트센터에서 '제 73회 아트엠콘서트'를 개최한다.

'아트엠콘서트'는 현대약품의 지속적인 문화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매달 국내 클래식 음악가들과 다양한 클래식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고품격 살롱 콘서트다.

이번 73회 아트엠콘서트는 실력파 타악기 그룹 '컴파스 타악기 앙상블'과 함께 경쾌하고도 시원한 타악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 컴파스 타악기 앙상블은 '7월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경쾌하면서 다양한 음역대가 매력적인 마림바, 비브라폰 등 타악기의 정수를 선보인다. /chisunti@

유니버시아드대회 '에스코트 키즈' 행사

롯데칠성음료 유소년 축구 활동 지원 등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식 음료 후원사인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열린 여자와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에스코트 키즈(Escort Kids)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소년 축구 활동 지원과 함께 미래 한국축구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기획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에스코트 키즈는 축구 경기에 앞서 22명의 선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어린이를 말한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나주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 22명이 참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 밖에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붐업 조성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위해 '청춘별지기 서포터즈'를 선발해 선수들에게 음료 및 스포츠용품을 지원하고 경기 응원, 관광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음료 부문 공식 파트너(Official Partner)로서 대회 기간 동안 선수·심판·자원봉사자 등이 마실 게토레이, 아이시스 등을 포함한 생수 및 음료를 후원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제공

/21cindiun@

진한 커피엔 달콤한 무스 케이크를~

엔제리너스커피 '초코&커피크림 케이크' 출시 커피+케이크 세트도 선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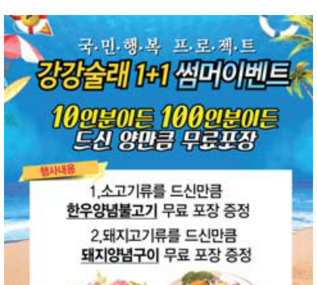
엔제리너스커피(대표 노일식)가 15일 달콤한 '초코&커피크림 케이크'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초코&커피크림 케이크는 달콤한 초콜릿 시트에 진한 커피와 부드러운 화이트 크림이 조화로운 맛이 특징으로 아메리치노 초코 싸인판을 꽂은 앙증맞은 무스 케이크이다. 가격은 4800원.

엔제리너스커피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에스프레소 크림 커피 아메리치노와 초코&커피크림 케이크를 실속 있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아메리치노 페어링 세트'를 15~31일까지 판매한다. 가격은 8000원. /21cindiun@

"부담 없이 드세요"… 강강술래 1+1 포장 이벤트

주문 양만큼 포장 증정 한우사골곰탕 6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알뜰하게 가족외식이나 모임, 직장회식을 치를 수 있도록 31일까지 주문한 양만큼 무료로 포장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상계점에서는 소고기류(술래·강강·왕양념갈비·한우스페셜·한우모둠구이)를 시키면 한우양념불고기를, 돼지고기류(한돈·돼지양념)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 양만큼 나갈 때 포장해 준다.

시흥점은 소고기류(술래·강강양념·한우갈비살)를 시키면 한우양념불고기를, 돼지고기류(한돈·돼지양념·생고기한판)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 양만큼 나갈 때 포장해 제공한다.

신림점에서도 소고기류(술래·강강양념·왕양념·본갈비·한우스페셜·한우모둠구이)를 시키면 한우양념불고기를 증정한다.

청담점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술래정식·민속양념정식을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제공한다.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는 본갈비·술래양념·일품양념·민속양념 구이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더 주며, 한우갈비살 주문 시 테이블당 한우육회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한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오는 15일까지 100% 한우로 우려낸 사골곰탕박스(500ml·10봉·20인분)를 60% 할인된 2만8600원에 구매 가능하다. /21cindiun@

"대기업이 협력사 안전보건수준 높였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인증을 주관하는 안전보건공단(이사장·이영순)은 지난 13일 경상남도 창원시 두산중공업(주)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두산중공업 21개 협력사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달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7월, 협력사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과 실태심사 등을 거쳐 협력사의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보완, 이번에 21개 협력사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chisunti@

star bag

'초코칩쿠키'로 솔로활동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가 14일 정오 첫 솔로 미니앨범 '알로하라(ALOHARA)'를 발표했다.

타이틀곡 '초코칩쿠키'는 촉촉한 초코칩 쿠키를 연인과 나눠먹는 모습을 그린 달콤한 가사를 순수한 듯 섹시한 구하라의 목소리로 담아낸 곡이다.

연정훈·남궁민과 한솥밥



배우 **김여진**이 연정훈, 남궁민이 소속된 935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935엔터테인먼트 측은 "입증된 연기력은 물론 다방면에서 재능 넘치는 배우 김여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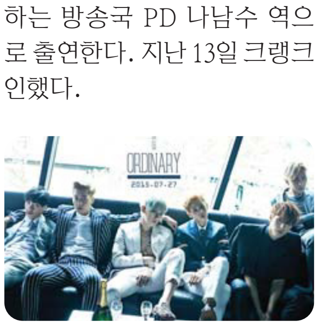




'날 보러와요'로 조우

배우 **강예원, 이상윤**이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날 보러와요'에 캐스팅됐다.

강예원은 화재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강수아 역을 맡았다. 이상윤은 화재사고를 추적하는 방송국 PD 나남수 역으로 출연한다. 지난 13일 크랭크인했다.



27일 '오디너리'로 컴백

그룹 **비스트**가 오는 27일 미니 8집 '오디너리(Ordinary)'를 발표하고 컴백한다고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14일 전했다.

비스트의 미니 8집 음반 '오디너리'는 여섯 멤버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솔직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장르의 트랙으로 담아낸 앨범이다.

영화 '손님' 류승룡

폭 넓은 감정연기 배우로써 욕심났죠

류승룡(44)에게 2014년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보여준 한 해였다. '표적'에서는 누명을 쓴 용병으로 땀 냄새 가득한 거친 액션을 선보였다. 일본군 장수 역할로 강렬함을 나타낸 '명량'에서의 연기.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내 아내의 모든 것' '7번방의 선물'에서 보여준 친숙하고 편안한 모습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개봉한 '손님'(감독 김광태)이 반가웠던 것은 그래서였다. 영화에서 류승룡은 떠돌이 악사 우룡 역을 맡았다. 순박하고 착한 캐릭터로 인간미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다. 아픈 아들에게 우룡이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류승룡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촬영 순서로 따지면 '손님'은 '표적'을 마친 뒤 선택한 작품이다. 전작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궁금증이 생긴다. 그러나 류승룡은 "계산적인 생각으로 작품을 고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늘 그랬듯 시나리오가 중요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순박하고 착한 떠돌이 악사 연기
배우 인생과 닮은 캐릭터에 매력

힘든 감정 유지 그게 배우의 숙명
열린 결말… 다양한 해석 즐기길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 비유와 상징들을 명민하게 잘 버무린 작품이었어요. 집단 이기주의, 진실을 거짓으로 혹은 거짓을 진실로 몰아세우는 광기, 사리사욕을 채운 뒤의 변화와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배신과 두려움, 공포 등이 '판타지 호러' 이름으로 잘 담겨 있었어요.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업영화라고 늘 획일적인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많이 끌렸어요."

캐릭터의 매력도 컸다. 배우의 인생과 닮은 떠돌이 악사라는 점이 그러했다. "우룡은 배우에요. 떠돌이 악사라는 것이 배우의 인생과 비슷하거든요. 두 시간 남짓한 영화에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보여줄 수 있는, 감정의 폭이 넓은 인물이었어요. 배우로서 욕심이 났죠."

영화는 우룡과 아들 영남이 지도에도 없는 마을에 머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다. 착하고 순박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우룡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크나큰 변화를 겪는다. 영화는 슬픔과 울분,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관객의 마음을 흔든다.

류승룡은 "우리 영화의 미덕은 중후반부에 있다"며 "시나리오에서 이미 그 변화가 견고하게 그려져 있어서 큰 걱정은 없었다. 오히려 앞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후반부의 감정 연기가 쉬운 건 아니었다. 며칠 동안 쉽지 않은 감정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승룡은 이런 감정 조절이야말로 배우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어요. 감정 노동이니까 스트레스죠.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감정을 잡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야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배우의 숙명이죠."

영화는 다소 논쟁적인 결말을 담고 있다. 직접 연기를 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지 궁금했다. 그러나 류승룡은 "결말에 대해서는 감독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배우가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하며 연기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만 영화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관객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박희순 첫 연출 뮤지컬 캐스팅 완료

주호민 웹툰 원작 '무한동력'
박영수·박정원·이상이 등 출연

배우 박희순이 뮤지컬 연출가로 데뷔해 화제를 모은 뮤지컬 '무한동력'이 캐스팅을 공개했다.

뮤지컬 '무한동력'은 주호민 작가의 동명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무한동력기관을 만드는 괴짜 발명가의 하숙집에 모여든 청춘들이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유쾌하면서 감동 있게 담았다. 하숙집 주인, 취업 준비생, 공무원 고시생, 고3 수험생, 비정규직 알바생 등 등장인물 대부분이 어려운 우리 사회에 적응하려는 소시민들이다.

2008년 야후 연재를 시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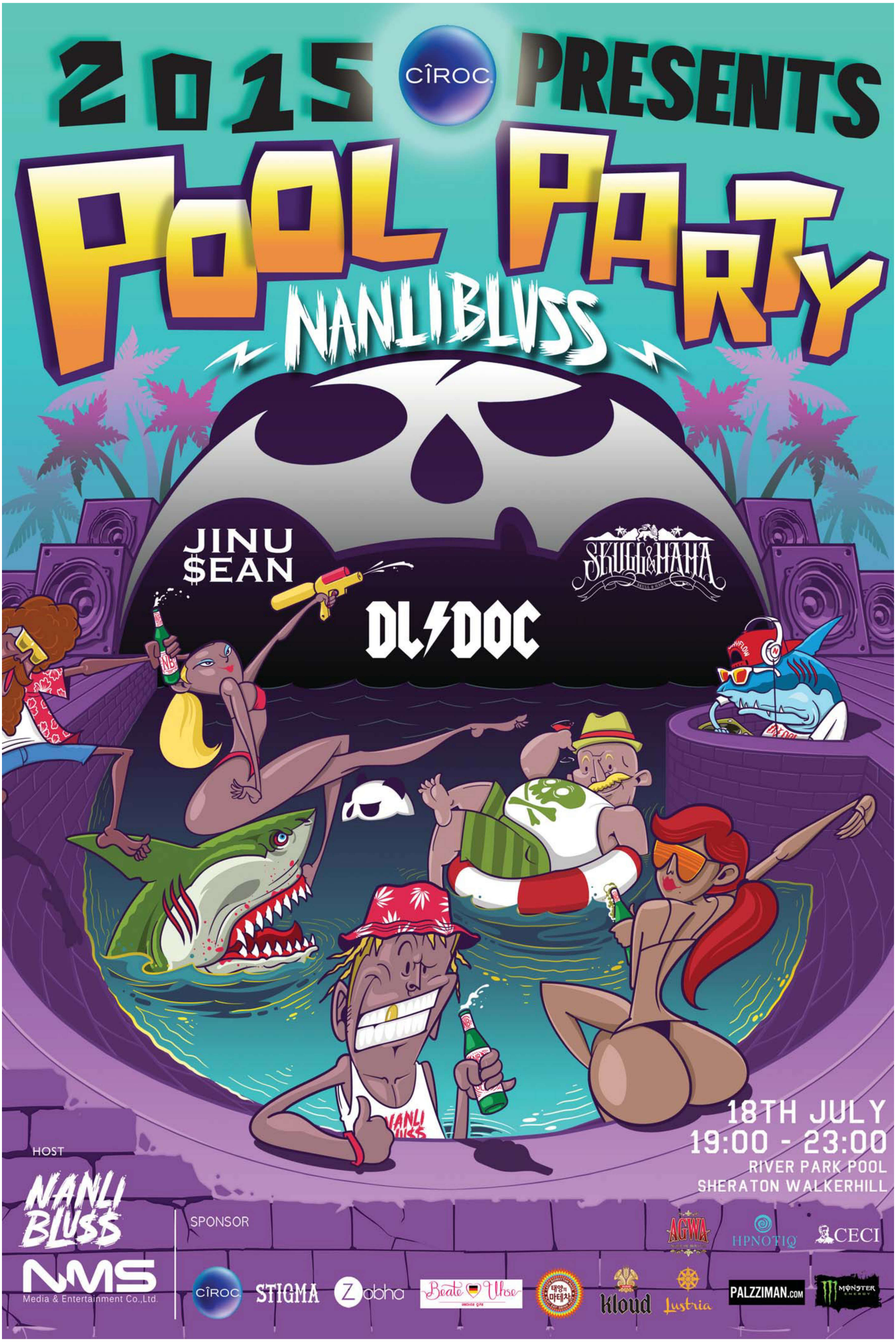


왼쪽부터 뮤지컬 '무한동력' 장선재 역을 맡은 박영수, 박정원, 이상이.

2009년 단행본 출간, 2012년 네이버 웹툰 연재 당시 평점 9.9, 매회 댓글 수 1만건 이상을 기록한 화제작이다. 2013년 SNS드라마(출연 임슬옹·김슬기·안내상)로 제작되기도 했다.

뮤지컬 무대에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취업 준비생 장선재 역에 뮤지컬 배우 박영수·박정원·이상이가 나선다. 괴짜 발명가이자 하숙집 주인 한원식 역은 뮤지컬 배우 김태한·이한밀이 번갈아 연기한다. 만년 고시생 진기한 역은 허규·이강욱·유제윤이 맡았다. 오는 9월 4일 대학로 TOM 1관에서 개막한다.

/김민준 기자 mjkim@



2015
CÎROC
PRESENTS
POOL PARTY
NANLIBLUSS
JINU
$EAN
SKULL & HAHA
DL/DOC
18TH JULY
19:00 - 23:00
RIVER PARK POOL
SHERATON WALKERHILL
HOST
NANLI BLUSS
NMS
Media & Entertainment Co.,Ltd.
SPONSOR
AGWA
HPNOTIQ
CECI
CÎROC
STIGMA
Beate Uhse
태양의 마테차
kloud
Lustria
PALZZIMAN.COM
MONSTER ENERGY

“소음 방지용 귀마개는 집에 두고 오길”

‘안산M밸리’로 역사적 첫 내한 ◆ 모터헤드

결성 40년 맞은 ‘가장 시끄러운’ 헤비메탈 밴드
모터헤드 다운 공연 위해 모든 대표곡들 준비

1975년 영국에서 결성된 모터헤드(Motorhead)는 기네스북에 가장 시끄러운 밴드로 기록돼 있는 헤비메탈 밴드다. 70세를 앞두고 있는 보컬 겸 베이스의 레미 킬미스터를 중심으로 필 캠벨(기타), 미키 디(드럼) 등 3인조로 구성된 이들은 세월을 무색하게 만드는 강렬한 메탈 음악으로 40년 동안 쉼 없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푸 파이터스와 함께 투어를 하고 있는 모터헤드는 오는 26일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안산M밸리록페스티벌로 처음 국내 무대에서 선다. 헤비메탈의 전설 같은 밴드의 역사적인 첫 내한 공연인 만큼 록 매니아의 관심도 뜨겁다.

모터헤드도 한국 공연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리더 레미 킬미스터는 최근 진행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에이전트를 통해 공연 문의가 들어왔다. 그전에는 문의가 없었거나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것 같다. 한국에 갈 수 있게 돼 대단히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공연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는 26일 안산M밸리록페스티벌을 찾는 헤비메탈 밴드 모터헤드. 왼쪽부터 필 캠벨(기타), 레미 킬미스터(보컬 베이스), 미키 디(드럼). /CJ E&M 제공

흔히 헤비메탈은 젊은 세대가 향유하는 음악으로 여겨진다. 록의 역사를 놓고 보면 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한 차례 정점을 찍은 장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모터헤드는 여전히 녹슬지 않은 메탈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음악에 대한 한결 같은 열정 때문이다.

레미는 “모터헤드와 로큰롤은 내게 있어 삶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좋아했고 큰 변화 없이 공연 투어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노년의 나이에도 헤비메탈을 고수할 수 있는 비결로는 “모터헤드의 음악이 여전히 모터헤드답다는 것”을 꼽았다.

첫 내한공연인 만큼 모터헤드는 자신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공연으로 팬과 만날 예정이다. 레미는 “세트리스트는 공연 직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 공연에서 모터헤드의 대표곡을 모두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그냥 공연장에 와서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디 소음방지용 귀마개는 집에 두고 오길 바란다”는 재치 있는 멘트도 함께 남겼다.

오는 8월에는 새 앨범 ‘배드 매직(Bad Magic)’도 발표한다. 레미는 “새 앨범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딱 ‘모터헤드’ 앨범”이라며 “반드시 들어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지금 내 나이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새로운 성취다. 모든 공연이 기념할 일이며 모든 노래들도 뜻 깊다”며 음악에 대한 변함없는 꿈을 전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10년차 아이돌의 비밀을 밝혀라

◆ MBC ‘라디오스타’

오후 11시 15분



10년차 아이돌 ‘슈퍼주니어 특집’이다. 김희철·최시원·이특·은혁·동해·예성이 출연해 그동안 쌓아온 내공을 드러낸다. 멤버 탈퇴를 비롯한 각종 스캔들부터 막을 새도 없이 터지는 각종 사건 사고에도 10년 넘게 한류 스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공개된다. 김희철과 이특은 옷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싸우고 3개월 동안 대화 없이 지낸 사연에 얽힌 비밀을 밝힌다.

◆ KBS1 ‘세상 끝의 집-마음의 언덕’

오후 10시

20년간 조울병으로 21번의 입퇴원을 반복한 아들과 연을 끊고 싶다는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진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한다.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 40분

대한민국 국민 식품 ‘라면’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라면 3사 관계자들을 특별 초빙해 라면의 역사부터 제조과정에 숨어있는 비밀까지 낱낱이 공개한다.



◆ tvN ‘고교10대천왕’

오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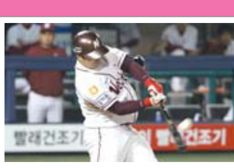
그때 그 시절의 ‘아날로그’ 점심시간부터 요즘 아이들의 ‘디지털’ 점심시간까지 숟가락이 오고가는 전쟁터 ‘점심시간’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bbuheng@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83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동생이랑 나랑 (21회)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농촌드라마 오! 할매 (7회)	50 오늘부터 사랑해 (71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23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27회)	00 곤 30 EBS 뉴스 50 사선에서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47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비타민	55 딱 너 같은 딸 (43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40 세계문화유산 등재 특집 <문화유산 코리아>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재)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세상 끝의 집-마음의 언덕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어셈블리 (1회)	00 밤을 걷는 선비 (3회)	00 가면 (15회)	45 극한 직업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쉰들러 리스트>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제9회 대구 국제 뮤지컬 어워즈 시상식	15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특선다큐	40 MBC 뉴스 24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한국영화특선 <빗속의 연인들>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비정상회담 (54회) (재)	20 집밥 백선생 (9회) (재)	20 오늘 뭐 먹지? (62·61회)		00 장화신은 고양이	 ◆ 프로야구 (18:30) 넥센 vs 삼성 (SPOTV+) 롯데 vs 한화 (MBC SPORTS+) KT vs 두산 (SKY SPORTS) LG vs KIA (SBS SPORTS) SK vs NC (KBS N SPORTS)
19시	40 연금복권 520 (211회) 55 JTBC 뉴스룸	40 고성국의 빨간 의자 (56회)	30 현장토크쇼 TAXI (380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10회)	50 라스트 에어벤더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41회)		00 <퍼펙트 프레데터>사자		
21시	40 유자식상팔자 (110회)	40 수요미식회 (25회)	00 유미의 방 (2·3회)	00 미션 플루토: 명왕성을 향하여		
22시			00 2015 테이스티로드 (18회)	00 항공사고 수사대 : 에어 크래쉬 (7회)	00 무비스토커 (2회)	
23시	00 냉장고를 부탁해 최고의 빅 매치 (3회)	00 고교10대천왕 (12회)	00 오늘 뭐 먹지? (79·2회)	00 <2차 세계 대전:대서양 전투> 영국의 반격	20 무비스토커:금주의 영화	
24시	30 비정상회담 스페셜 (54회)	20 강용석의 고소한 19 (141회) (재)	00 MAPS (3회)	00 서바이벌 알래스카3 (13회)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영광의 얼굴들. /연합뉴스

‘광주U대회’ 한국 종합 1위… 역대 최고 성적

금 47·은 32·동 29개 총 108개 메달 획득
박대훈·안창림 등 리우올림픽 선전 예고

한국이 제28회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U대회 참가 역사상 최고 성적을 달성하면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예고했다.

한국은 대회 12일간 금 47·은 32·동 29개(총 10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 수는 2013년 러시아 카잔 대회(금 17·은 12· 동 12개)의 약 3배, 전체 메달 수는 2.5배에 달한다. 그동안 메달이 가장 많았던 2011년 중국 선전 대회(금 28·은 21·동 30개)보다도 금메달과 전체 메달 수는 각각 19개와 29개가 더 많다. 2003년 대구 대회(금 26·은 11개·동 15개)보다도 금메달은 21개를 더 따냈고 전체 메달 수는 2배를 넘었다.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오른 것은 2007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이어 이번이 사상 두 번째다. 메달 수가 동계보다 많은 하계 대회로만 한정한다면 1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메달은 처음 100개를 돌파했다.

내년으로 다가온 2016 리우 올림픽에서 활약할 유망주들의 가능성을 엿본 대회이기도 하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는 3관왕에 오르며 이번 대회를 빛냈다. 금메달 3개(개인종합·후프·볼), 은메달 2개(곤봉·리본)를 목에 걸며 한껏 물오른 기량을 뽐냈다.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사격의 박대훈(20·동명대)은 남자 50m 권총 개인·단체전,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우승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사격 간판’ 진종오(36·KT)의 뒤를 이을 유망주로 이름을 알렸다.

리커브 양궁 세계랭킹 1위인 이승윤(20·코오롱)은 이번 대회에서 3관왕에 올라 리우올림픽 금메달 명중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대회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혼성전·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독식해 세계대회를 주름잡는 한국 양궁의 자존심을 지켰다.

일본의 귀화 요청을 뿌리치고 태극마크를 단 ‘재일동포 3세’ 안창림(21·용인대)은 유도 올림픽 금메달 계보를 이을 유망주로 눈도장을 찍었다. 유도 남자 73㎏급 금메달을 따기까지 모든 경기를 한판으로 이기는 시원한 경기를 펼쳤다.

한국 테니스 유망주 정현(19·상지대)도 광주에서 남자 단식과 단체전 금메달과 남자복식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윔블던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1회전 탈락 직후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해 단식과 복식 경기를 모두 소화하느라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이 같은 성과를 냈다.

배드민턴에서도 남자단식 기대주가 두각을 나타냈다. 전혁진(20·동의대)은 광주 유니버시아드 배드민턴 남자단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9위인 ‘간판’ 손완호(27·김천시청)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혼합단체전 금메달을 더해 대회 2관왕에 오른 전혁진은 리우올림픽 이후의 올림픽까지 내다보는 한국 배드민턴 남자단식의 차세대 주자로 성장해 나갈 전망이다.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전인지, KLPGA 특급대회 BMW챔피언십 출격

이정민·고진영과 상금 레이스



‘월드스타’로 발돋움한 전인지(21·하이트진로·사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특급대회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출격한다.

16일부터 나흘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파72·6642야드)에서 열리는 이번 주 대회는 한화금융 클래식 출전권과 함께 총상금 12억원이 걸려 KLPGA 투어 최고 상금을 자랑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우승 상금만 도 3억원으로 올 시즌 상금왕 경쟁의 윤곽을 알 수 있는 대회이기도 하다.

전인지가 KLPGA 시즌 상금 랭킹 1위(5억5900만원)를 달리고 있고 이정민(23·비씨카드)이 2위(5억800만원), 고진영(20·넵스)이 3위(4억4700만원)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들 3명이 치열한 상금 레이스를 펼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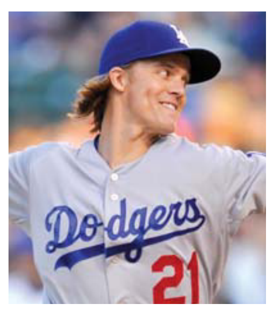
전인지는 올해 일본여자골프투어의 메이저대회 살롱파스컵과 LPGA 투어의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을 제패해 월드스타로 떠올랐지만 국내 무대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 전인지는 국내 무대에서 3승을 올렸지만 이정민과 고진영도 3승을 거둬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인지의 최대의 적은 ‘피로감’이다. US여자오픈에서 나흘간 접전을 치르고 우승한 전인지는 14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와 곧바로 BMW 챔피언십을 준비한다.

경쟁자들의 투지도 만만치 않다. 이정민은 전인지와 함께 US여자오픈에 출전해 공동 35위라는 성적표를 거뒀지만 국내 대회에서 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무릎 부상 때문에 고전한 고진영은 지난주 KLPGA 투어 초정탄산수·용평리조트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했다. /하희철 기자

NL 그레인키 선발… 매커천은 1번타자로

MLB 올스타전 라인업 발표



‘별들의 전쟁’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뛰게 될 선수들의 선발 라인업이 공개됐다.

MLB닷컴은 15일(한국시간) 신시내티 레즈의 홈인 미국 오하이오주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릴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선발 라인업을 14일 발표했다.

내셔널리그 올스타팀은 류현진(28)의 팀 동료 잭 그레인키(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가 선발 투수로 나선다. 전반기 8승 2패 평균자책점 1.39를 기록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전 선발로 나서는 영광을 안았다.

왼손 골절로 올스타전에 나서지 못하는 지안카를로 스탠튼(마이애미 말린스) 대신 중견수로 선발 출전하게 된 강정호(28)의 팀 동료 앤드루 매커천(29·피츠버그 파이리츠)은 1번타자로 출전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톱타자를 맡게 됐다. 토드 프레지어(신시내티 레즈 3루수)가 2번에 배치됐고 브라이스 하퍼(워싱턴 내셔널스 우익수), 폴 골드슈미트(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버스터 포지(샌프란시스코 포수)가 중심타선을 채웠다. 앤서니 리조(시카고 컵스 지명타자), 조니 페랄타(세인트루이스 유격수), 작 피더슨(다저스 좌익수), D. J. 르마이유(콜로라도 로키스 2루수)는 하위타선을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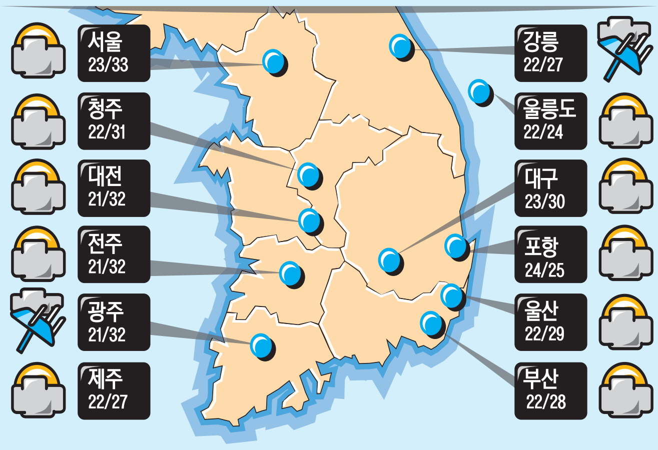
아메리칸리그 올스타팀 선발 투수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좌완 댈러스 카이클이다. 전반기에서 11승 4패 평균자책점 2.23을 기록했다.

톱타자는 중견수 마이크 트라우트(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3년 연속으로 나서게 됐다. 조시 도널드슨(토론토 블루제이스 3루수)이 트라우트와 함께 테이블 세터를 이루고, 앨버트 푸홀스(에인절스 1루수)와 넬슨 크루스(시애틀 매리너스 지명타자), 로렌조 케인(캔자스시티 로열스 우익수)이 클린업 트리오를 구성한다. 애덤 존스(볼티모어 오리올스 좌익수), 살바도르 페레스(캔자스시티 포수), 호세 알투베(휴스턴 2루수), 알시데스 에스코바르(캔자스시티 유격수)가 하위타선을 채웠다. /하희철 기자

날씨

7/15 수 일출시각 05:22 일몰시각 19:5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5					8
	9		6		3			
5		7		1	8			
	1					4		6
7		6	4		5	8		9
8		9					5	
			2	5		6		7
			8		7		3	
6					4			5

2		9					6	
	1		4	6	3		2	
		4			5	7		
					8		3	9
			5	7	9			
9	8		3					
		2	6			4		
	7		9	8	4		5	
	9					8		6

스도쿠 정답

4	6	1	5	7	2	3	9	8
2	9	8	6	4	3	5	7	1
5	3	7	9	1	8	2	6	4
3	1	5	7	8	9	4	2	6
7	2	6	4	3	5	8	1	9
8	4	9	1	2	6	7	5	3
9	8	3	2	5	1	6	4	7
1	5	4	8	6	7	9	3	2
6	7	2	3	9	4	1	8	5

2	5	9	8	1	7	3	6	4
7	1	8	4	6	3	9	2	5
3	6	4	2	9	5	7	8	1
5	4	7	1	2	8	6	3	9
6	2	3	5	7	9	1	4	8
9	8	1	3	4	6	5	7	2
8	3	2	6	5	1	4	9	7
1	7	6	9	8	4	2	5	3
4	9	5	7	3	2	8	1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Media Manipulation' National Pension on Samsung's Side?

<'언론플레이' 국민연금, 삼성편 맞아?>

As the general meeting on the 17th regarding the merging of Samsung and Cheil Fabric is about to start, the National Pension's ambiguous stance is causing confusion. According to Samsung C&T on the 13th, National Pension's share is 11.21% which has the greatest share among all share holders. And the analysis that the National Pension has agreed to the merging is dominant. But the National Pension is still remaining silent. The financial investment firms are questioning whether the National Pension can play its part wholly or not regarding the decision making. If any problems occur on their voting rights,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S Hedge Fund Elliot Management will become even more difficult.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분수령이 될 내부 투자위원회를 10일 오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강남사옥 로비의 모습. /연합뉴스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PAGODA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주주총회(17일)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어정쩡한 자세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3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분 11.21%를 갖고 있는 회사 최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에 찬성의견을 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노코멘트'다. 금융투자업계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온전하게 삼성물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의결권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싸움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국비지원 호주워킹홀리데이를 가고싶은데… 구체적인 계획 세우고 경험자에 조언 구하세요

상큼발랄그녀 여자 85년 3월 25일 음력 16시 5분

Q 지난번에 연애운 상담을 해주셔서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현재는 그때보다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며 이번에는 진로에 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내년에 국비지원 호주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유아 교육교사에 도전해서 1년간 영어도 배우고 해외생활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년이 워킹홀리데이 나이 제한이 되는 해라서 신중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고 싶은 생각은 계속 해왔는데 아무래도 타국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재취업 문제도 있고 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A 사주란 생년월일을 놓고 현실과 과거 미래를 예측하며 분석하여 삶을 지펴나가는 것입니다. 학문 이기에 많은 연구를 해 나가는 것도 명리학자의 사명감이며 독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겹습니다.

자~ 귀하를 포함하여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호주워킹홀리데이를 가는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 계획한 것인지 아니면 휴식과 여행을 위해 계획한 것인지에 따라 어느 도시로 가서 생활을 할 것이며 언제 출국을 할 것인지 생활에 필요한 예산과 경비는 어느 정도를 마련해 가야 할 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는 해외에 나가서 지낼 수 있는 기본은 되어 있으나 호주워킹홀리데이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영어 실력입니다. 직접 부딪히며 일도 구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영어실력의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지며 시급이 달라지고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학 실력이 호주워킹홀리데이의 성공과 실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도시에서 생활을 한다면 더 많은 더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며 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리 항공권을 준비하는 것이 시작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며 가지고 가는 짐 무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현지 물가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면 챙겨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거나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고 저렴하게 숙소를 예약하는 방법과 단기 쉐어도 참고하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15일 (음 5월 30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때는 반드시 옵니다. **60년생** 억지로 밀어부치지 말고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세요. **72년생** 지금 상황에서 만족하세요. **84년생** 욕심을 부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소 **49년생**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61년생** 무리한 목표는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3년생** 아무 걱정 없이 아주 무난한 하루입니다. **85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호랑이 **50년생**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길합니다. **62년생** 좋은 성과가 있겠습니다. **74년생** 양보하면 길합니다. **86년생** 윗사람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끼 **51년생** 주위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습니다. **63년생** 자만하지 마세요. **75년생** 방심하면 큰 화를 입습니다. **87년생**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용 **52년생** 건강이 걱정됩니다. **64년생** 괴로움 끝에 조지를 관철하면 좋은 수가 생깁니다. **76년생** 나쁜습관으로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88년생** 감정을 통제하고 재능을 보이지 마세요.

뱀 **53년생** 귀하에게는 파란색이 참 잘 어울립니다. **65년생** 대인관계에 작은 마찰이 생깁니다. **77년생** 건망증을 주의하세요. **89년생** 술자리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말 **54년생**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66년생** 친근하게 만나는 이성에게 연락해 보세요. **78년생** 오늘은 일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90년생** 근교로 여행을 떠나세요.

양 **55년생** 삶을 더욱 정열적으로 사세요. **67년생** 걱정했던 일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79년생** 오랜만에 돈맛을 봅니다. **90년생** 뜻하지 않았던 재물이 들어옵니다.

원숭이 **56년생** 투기 사업에 손대지 말고 저축하세요. **68년생** 부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80년생** 북방향이 길합니다. **92년생** 베푸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닭 **57년생** 안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69년생** 윗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81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집니다. **93년생** 그외의 일에서도 운이 따릅니다.

개 **58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길합니다. **70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 입니다. **82년생** 직장문제도 점차 잘 해결 될 것 같습니다. **94년생** 의심은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립니다.

돼지 **59년생**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될것입니다. **71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3년생**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습니다. **95년생**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냅니다.

하반기 경제 '3대 악재' 경계해야



김하성의 세상보기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여파로 가뜩이나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재정위기, 중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인상등 3대 대외악재가 겹쳐 하반기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인 그리스는 국제 채권단과 마라톤협상 끝에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에 합의 그렉시트(유로존 탈퇴) 파국은 일단 모면했다.

그러나 최악의 고비를 넘겼지만 사태 해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당초 긴축안보다 더 혹독한 개혁안에 대한 입법안을 의회에 상정해 15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17일에는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독일을 비롯 채권국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향후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에 35억 유로를 갚아야 하는 오는 20일이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도 심상치 않다. 최근 증시 폭락은 그리스 사태보다 훨씬 충격이 크다.중국 증시가 한 달새 30% 넘게 폭락하면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무려 3조2293억 달러(약 3649조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23배에 해당한다.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2808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1476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거래정지를 신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파장 또한 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중국 증시는 지난주 중국 국무원이 4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긴급 투입하겠다는 부양책 발표후 반등세를 보이다 하락하는 등 여전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15일 2분기 GDP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1분기 7%보다 낮은 6.8%로 전망하고 있어 증시 변동성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중국 발 세계경제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움직임도 달갑지 않다. 그리스 사태 여파로 금리인상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최근 클리블랜드에서 가진 연설에서 올해 말 금리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예측한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로 기대하고 있는 3.1%보다 0.3%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그리스 재정위기, 중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악재가 하반기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경우 올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인식해 금융당국은 대외 불안요인을 매일 점검하고 시장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키로 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과 실물경제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경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긴장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

/뉴미디어국장

社說

하나+외환 통합은행 기대와 우려

국내 최대 은행이 탄생한다고 한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마침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조기 통합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어차피 두 은행의 통합은 시간문제였이다. 그 사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 사이에 조기통합 여부를 둘러싸고 다소 마찰이 있었지만, 더 이상 다툼 없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하니 다행이다.

통합 은행은 330조원의 자산으로 업계 1위에 서게 된다.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선도은행'이 된다는 것이다. 두 은행의 서로 다른 강점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낳는다. 개인금융이 강한 하나은행과 기업여신이나 외환업무에 오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이 합치면 이상적인 조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니 앞으로 '선도은행'이 되겠다는 의욕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은행이 일단 '선도은행'이 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 듯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선도은행이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지는 않는다. 몸집이 큰 은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건실한 우량은행이 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의 씨티은행을 비롯한 많은 대형금융사들이 부실의 늪에 빠져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했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은행들이 더 건실하게 운영되고 금융위기의 파고에도 든든하게 버텼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몸집이 커진 것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대형은행이 곧 좋은 은행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도 몸집이 커진 후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에 간혹 연루되곤 했다. 반면 그런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핑계로 중소기업에 너무 야박하게 대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통합은행은 앞으로 이런 기대와 우려를 모두 유의해서 진정한 최대은행이 되기를 바란다.

너무 뜨거운 부산·대구 분양시장



기자 수첩

박 선 옥
<경제부 기자>

지방, 특히 부산과 대구 분양시장이 심상치 않다. 지금의 열풍을 전국적인 현상이라 치부하기에는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모습이다.

최근 부동산114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청약을 마감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6곳이 부산과 대구에 집중됐다.

평균 경쟁률을 보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9.9대 1과 4.7대 1에 그친 반면 지방광역시는 50.3대 1에 달했다. 또 1순위에서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 12개 중 9곳이 지방광역시에 위치했다.

이렇다 보니 지방에서 분양만 했다 하면 올해 최고 경쟁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반도건설 '동대구 반도유보라'는 273대 1로 대구지역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부산에서 포스코건설 '광안 더샵'이 보인 경쟁률 379대 1은 전국 최고 자리를 꿰찬 기록이다.

이 같은 부산과 대구의 분양열풍은 실수요자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수도권보다 먼저 불어온 훈풍 탓에 지난해부터 거품 논란이 있었던 데다 무엇보다 수요가 탄탄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 많은 수요자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가입기간 6개월이고 재당첨 금지 규정이 없다. 6개월마다 청약을 하고 통장을 만드는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분양업계에선 부산과 대구에 6개월마다 청약광풍이 분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내려간 투기꾼들이 현지인들의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투기세력이 몰릴수록 막차를 탄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오랜만에 불어온 분양훈풍도 좋지만 투기꾼의 배만 불리고 실수요자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기 전 열기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여름철 유모차 위생 관리는?

소비자 119

시트 분리되야 세탁 용이 외출시엔 '전용 모기장'



유아를 데리고 외출 시 필수품이 유모차다. 여름은 음식뿐만 아니라 유모차 위생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계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다.

유모차가 오염되면 통째로 세탁할 수 없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시트가 분리되는 유모차를 구매하면 손쉽게 세탁이 가능하다. 지비 에어스마트는 이너시트가 별도로 분리 가능하다. 유아가 오랜 시간 앉아서 이동을 해도 엉덩이가 배기지 않도록 메모리형 이너시트와 통기성이 높은 3D 매시 시트를 적용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시트를 분리할 수 있는 유모차의 경우 따로 시트를 하나 더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끌로렌 멀티유모차 시트는 세탁할 수 없는 유모차나 카시트의 오염을 방지해주고 양면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부드러운 감촉의 에어매시 시트를 적용, 연약한 아기 피부 자극을 최소화 하고 땀띠 등 더운 여름철에 예민한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모기를 비롯한 각종 벌레들은 야외 활동 시 큰 골칫거리 중 하나다. 모기가 동물 털로 인식할 수 있는 어두운 색의 옷은 피하고 모기 퇴치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전용 팔찌·패치 등을 사용하면 된다. 또 전용 모기장을 장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맥클라렌이 선보인 유모차 모기장은 캐노피 위쪽에 걸친 후 양쪽 측면과 앞바퀴 양쪽 측면 돌출부위에 모기장을 고정, 좌석 등받이 뒤쪽에서 고리를 걸어주면 된다.

/김수정기자 ksj0215@

인사

■ 고용노동부
△홍보기획팀장 김범석 △익산지청장 전해선
■ 국가보훈처
◇국장급 전보 △보상정책국장 유주봉 △복지증진국장 이성춘 △서울지방보훈청장 이경근 △부산지방보훈청장 전홍범 △광주지방보훈청장 이병구
■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은행과장 이윤수
■ 경기도
△용인부시장 조청식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양평부군수 김태정 △오산부시장 유영봉 △일자리정책관 김건 △건설국장 송상열 △가평부군수 한연희
■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박왕희
■ 미래기술연구센터
△IP노믹스 편집장 류경동 △데이터분석팀장 이강욱
■ 환경부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관 유호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장 서흥원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변화대응과장 오일영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장 조희송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총괄지원팀장 한준욱
■ 한국가스공사
◇전보(2급)△비서실장 장춘규 △인사팀장 김천수 △인재육성팀장 김기표 △도입운영팀장 김치만 △도입지원팀장 정은경 △E&P지원팀장 임봉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김성식 △글로벌협력실장 성정곤 △건설인증센터장 정한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장 태용호

기사제보=02)721-9832